

연구총서 2001-03

중·러 전략적 협력 강화와
한반도

신상진

국제관계 연구실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중·러는 미·일동맹 강화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유럽 확대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움직임에 반대하면서 안보협력을 심화하고 있다. 더욱이 부시 행정부 들어 미국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독단적으로 세계질서를 유지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중·러간의 전략적 접근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러관계 강화와 중·러의 한반도정책 변화는 한반도 안보 및 통일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0년대 이래 중·러관계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라 중·러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 인지를 분석·전망하는 동시에, 중·러관계 강화가 동북아 및 한반도의 안보·통일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1. 1990년대 중·러관계의 전개

1990년대 들어 러시아와 중국 내부에서 큰 변화가 나타남으로써 중·러관계에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소련이 12개의 독립국가연합으로 분열된 후 중·러는 관계정상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였고, 1994년 장쩌민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건설적 동반자관계’ 구축에 합의하였으며, 1996년 이후에는 미국에 의한 세계질서 지배에 반대하면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관계 발전을 모색해 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관계정상화를 모색해 온 중·러는 1994년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방러시 양국관계를 ‘건설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건설적 동반자관계’는 평화공존 원칙에 입각하

여 양국관계를 완전히 평등한 선린우호관계와 호혜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동맹을 결성하지 않으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중·러는 「전략미사일 상호 불겨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한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그리고 「동부지역 국경선협정」과 「서부지역 국경선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중·러 국경선의 99% 이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되어 1960년대 이래 지속된 양국간 국경선 지역의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중·러간 신뢰구축 조치가 진전을 보이게 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무기판매도 1990년대 초반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92년까지 러시아는 몽고주둔 군사력을 완전히 철수하였고, 1995년부터 1996년까지 극동지역에 배치된 병력을 15만명 감축하였다. 1994년 중·러는 중앙아시아 3개국과 함께 접경 100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병력 이동상황을 통보하고 상호 군사훈련 참관 등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군사적 신뢰구축이 증대됨으로써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연간 10억 달러 정도의 무기를 수입하여 러시아의 최대 무기 판매 대상국이 되었다.

1996년 4월 열린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중·러는 새로운 단계로 관계발전을 모색하게 되었다. 중·러는 국제질서의 다극화가 평등하고 민주적인 신국제질서 형성에 도움이 되고, 역사·문화·경제·사회 및 정치제도의 차이가 국가간의 관계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유엔의 역할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특정 강대국의 정치군사동맹 결성·강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핵무기 확산과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반대하고, 변경지역에서 군사적 신뢰와 군축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중·러 사이에 안보협력이 강화된 주요 이유는 세계 신질서 구축에 대한 양국의 공통 인식,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반대입장, 첨단 군사무기장비 거래 필요성 그리고 민족분리주의·테러·종교문제 등에 대한 일치된 입장에 기인하였다.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 연구·개발을 지속함으로써 중·러간 안보적 이해관계가 더욱 심화되었는데, 중·러는 미국이 미사일방어 구상을 실현하게 될 경우 자국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되고 군비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국에게 미사일방어 구상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이상과 같은 중·러관계 발전과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특정 국가에 의한 세계질서 주도를 반대하고 세계질서 다극화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중·러는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목적이 미국을 견제하려는 데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의한 패권 체제를 공동으로 견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중·러는 냉전시기의 안보관 폐기를 주장하고, 국가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무력을 사용하여 타국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유엔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중·러의 주장들은 21세기 세계 신질서를 미국이 독단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2. 중·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개념

중국은 현재까지 러시아, 미국과 ‘전략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는데, 전략 동반자관계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이익을 공유하고 중대 문제에 대해 견해가 일치하거나 유사한 관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전략 동반자관계는 협력의 범위를 쌍무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

무대에까지 확대하는 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전략 동반자관계는 중국이 추구하는 동반자관계 중 가장 차원이 높은 관계라고 하겠다.

중국과 러시아는 1996년 이래 상호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합의하고 각종 채널을 동원하여 관계증진을 도모해 왔다. 현재 중·러가 추구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는 다음과 같은 합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전략적 관계는 협력의 범위를 지칭한 것으로서 중·러 협력관계를 쌍무관계에 국한시키지 않고 세계적 차원으로까지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유엔이나 아·태경제협력체 등 국제기구 내에서도 협력을 추구하고 에너지, 대량살상무기, 국제테러 등 전지구적 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협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러는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목적이 제3국을 겨냥하려는 데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으나, 쌍무문제와 국제문제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3국과 이익 충돌이 일어날 때에는 이들 국가에 대해 공동 대응하게 될 수 있다.

둘째, 협력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은 중·러관계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 중·러는 구속력과 의무를 요구하는 동맹을 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협상과 합의에 기초하여 협력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상호 존중하고,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관계를 발전시키고, 안보적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국제문제에서 상호 협조를 강화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러가 정치적 상호존중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와 사회제도의 차이가 양국 관계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중·러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는 21세기를 지향한 것으로서 이미 형성된 것이 아니라 양국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중국은 다극화의 진전이 중국의 경제발전과 세계 평화와 안정

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러시아도 세계질서의 다극화가 강대국 지위 회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러가 추구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하에서 중·러는 21세기 다극화 질서 구축을 중요한 전략목표로 삼고 있다.

넷째, 중·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는 다음과 같은 협력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마다 적어도 2차에 걸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고 지도자간 핫라인을 통해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해마다 한 차례씩 총리회담이 개최되고 있으며, 부총리가 주재하는 공동회의, 외교부장 회담 및 외무차관이 주재하는 「평화와 발전위원회」 등이 열리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러는 주요 국제문제를 사전 협의하고 사후 통보하고 있다.

다섯째, 중·러는 2001년 7월 장쩌민 주석 방러시 체결한 「선린우호 협력조약」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제도적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중·러간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은 냉전시기의 동맹조약을 복원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러간 협력관계가 전방위에 걸쳐 구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징표로 볼 수 있다.

3. 21세기 초 중·러관계 변화 전망

21세기 초 예상되는 중·러관계로 적대국관계, 동맹관계, 선린우호관계 등을 상정할 수 있다. 긴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고 러시아 내에 중국에 대해 위협인식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러관계가 1960년대와 같은 적대적인 상태로 변화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양국 공히 대내 경제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관계를 악화시키기를 원하지 않는

다. 양국은 국경지역을 평화로운 상태로 유지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러시아가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였지만, 중·러간에는 이념대립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중·러는 각종 채널을 통하여 상대방이 선택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방식을 존중함으로써 양국관계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다는 데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중·러간 전략적 제휴가 강화되어 양국관계가 동맹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중·러관계가 동맹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의해서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을 무시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유럽 확대정책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ABM조약을 파기하고 미사일방어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려 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자연적으로 반미 성향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중·러는 정례적으로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등을 개최하여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며,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아시아지역 안보협력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를 활성화하여 미국의 대중·러 견제정책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활용하려 할 수 있다.

셋째로는 중·러가 다극화 질서 구축문제 등으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양국관계가 동맹관계로까지는 발전되지 않고 양국의 실리에 기초한 전략적 협력관계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 중·러간 안보협력의 범위와 깊이는 현재처럼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중·러 양국의 이익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즉, 중·러간에는 현재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는 공히 국가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대내 발전과 안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에 직접 대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2001년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 테러사건 발생 이후 중·러가 미국의 대아프가니스탄 보복공격을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들 양국의 발전을 위해 미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러는 정상회담 이후 발표하고 있는 공동성명문과 선린우호협력조약에서 양국간의 군사안보 영역에서의 협력이 제 3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독립자주외교정책 노선을 표방하면서 어떤 강대국과도 동맹관계를 결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해 왔다. 중국은 동맹외교를 냉전시기의 안보개념이라고 비난하고 협력안보를 21세기의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2001년 12월 11일 세계 무역기구에 정식 가입하게 되었고 러시아도 이 기구에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질서로의 편입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4. 중·러관계 변화와 동북아 및 한반도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미·일간 공조체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러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구축을 모색하는 결정적인 이유중의 하나는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 대처하려는데 있기 때문에, 중·러관계 발전은 미국의 동북아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여전히 중국을 경쟁상대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대처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간의 안보협력 강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일본과의 군사안보적 유대관계를 계속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동북아에서는 미·일동맹에 대처하기 위한 중·러 안보협력 구축과 중·러 안보협력 강화에 따른 미·일동맹 심화가 반복되는 형태로 안보질서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러간 안보협력 강화에 제

약요인이 존재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중·러와의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 많기 때문에 향후 전개될 미·일 대 중·러간의 경쟁구도는 냉전시기와 같은 진영론적 대결구도가 아니라 각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느슨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구도는 미국의 대중·러 정책에 의해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중·러에 대해 유연한 정책을 전개하게 되면 중·러간의 안보협력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것이나, 미국의 대중·러 정책이 강경한 방향으로 전개되면 중·러간 전략적 제휴 필요성이 더 증대될 것이다.

한편, 중국·러시아·북한 3국 사이에 안보협력관계가 복원될 가능성도 있으나, 냉전시기처럼 이들 3국관계가 북방 3각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러간에는 전략적 불신이 상존하고 있고, 중·북관계와 러·북관계도 상호 전략적 이해에 따라 좌우되는 형태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와는 달리 중·러·북한 지도부 사이에 인적 유대관계가 희박하며, 이념의 상이성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국가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이들 3국관계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도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키고 있는 북한과 무리하게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보다는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세계 어떤 강대국과도 동맹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외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공동의 적을 상정하지 않는 협력안보개념을 21세기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러·북한 3국관계가 미국이나 한국을 겨냥한 군사적 동맹 성격을 갖는 긴밀한 안보협력관계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러관계 발전은 한반도 안보 및 통일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중·러·북한간 안보협력관계가 확대되면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중·러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다. 중·북, 중·러 지도

부간 교류가 확대되고 북한에 대한 중·러의 정치·경제·군사적 지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한국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에 대한 중·러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미국과 일본도 한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접근정책을 적극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중·러관계가 강화되고 중·러·북한간 안보적 연대가 강화되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주변 4국간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 주도로 한반도문제를 논의하여 통일시기를 앞당기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러간 안보협력 심화는 한반도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우선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중·러 양국간 공감대가 확대될 것이다. 중·러 모두 한반도의 안정유지를 바라고 때문에 북한에 대해 대규모 군사지원을 제공하기보다는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계속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중·러 안보협력 강화는 한반도 안정유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5. 한국의 정책 고려사항

중·러간 안보협력 강화가 동북아 안보질서 및 한반도 통일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 한국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중·러 정책 및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미국과의 동맹관계 유지를 핵심 외교정책 기조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21세기 초까지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지속될 것이며, 중·러간 안보협력도 일정 정도 제약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기존의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한 안보협력관계를 유지하

는데 외교안보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굳건한 안보협력관계를 유지할 때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한국이 가지는 안보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도록 할 수 있다.

둘째,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도 안보교류·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중·러·북한간 관계복원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북한에 대한 중·러의 영향력도 다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에 유지되고 있는 중·러와의 군사교류·협력 채널을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군사안보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방안까지도 적극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러와의 군사안보 교류·협력 추진시 미국과 사전 협의하고 협의 내용을 사후에 통보함으로써 한·미 동맹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러관계 강화가 남북관계 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중·러에 대해 외교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중·러간 안보협력 강화가 중·러·북한간 북방 3각관계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단정짓고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중·러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러에 대해 외교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중·러관계 개선을 남북한간 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러시아와 함께 북한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천연가스와 석유 등 중국·러시아의 자원을 북한을 통하여 육로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공급선을 다원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중·러간 안보협력관계 강화 결과 미·중, 중·일관계가 경색되면 한반도문제를 둘러싸고 4대국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바, 한국

은 미·중, 중·일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중재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중·일·러간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을 만큼 강대국이 아니지만, 지역 다자안보대화 개최 등을 통해 강대국간 관계악화 가능성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미국의 MD정책과 ABM조약 개정문제와 관련하여 정책적 모호성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01년 2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시 한국이 ABM조약 개정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한·미관계를 난처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한국은 MD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 앞서서 선부르게 한국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보다는 가능한 입장표명을 유보하면서 미국과 제한적으로 미사일관련 기술·정보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II. 중·러관계의 전개: 과거와 현재	3
1. 관계정상화 시기	3
2. 건설적 동반자관계 모색 시기	8
3.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구축 시기	12
III.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개념과 특징	24
1.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개념	24
가. 중국의 대외관계와 동반자관계	24
나. 동반자관계의 개념	26
다. 동반자관계의 유형	28
2. 중·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특징	32
IV. 21세기초 중·러관계 변화 전망	38
1. 중·러의 대외정책 결정 요인	38
가. 중국	38
나. 러시아	41
2. 21세기 초 중·러관계: 실리에 기초한 전략적 제휴	45
가. 정치외교관계	47
나. 군사안보관계	49
다. 경제무역관계	50

V. 중·러관계 변화와 동북아 및 한반도	52
1. 중·러관계 강화와 동북아 안보질서	52
가. 미·일 대 중·러간 경쟁구도 유지	52
나. 미·중간 갈등 지속	54
다. 미·러간 협력과 불신 양립	55
라. 중·일간 불신 증대	56
2. 중·러관계 강화와 한반도 통일환경	57
가. 중·러의 한반도정책	57
나. 중·러·북 3각관계 전망	61
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63
VI. 한국의 정책 고려사항	65
참고문헌	69

I. 서론

한반도와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는 두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러는 미·일동맹 강화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유럽 확대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움직임에 반대하면서 안보적 연대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부시 행정부 들어 미국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독단적으로 세계질서를 유지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중·러간의 전략적 접근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러는 첨단 군사무기 거래를 확대하고 있고, 군사지도자 상호 교환방문을 통해 군사안보적 신뢰구축을 증진시키고 있다. 1990년대 이래 중국은 매년 러시아로부터 10억 달러 정도의 군사 무기·장비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호이27 전투기와 소브르메니급 구축함 등 러시아가 중국에 제공하고 있는 군사무기는 중국의 군사현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2001년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6차 상하이 5개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선린우호 협력조약」을 체결하는 등 러시아와 안보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러는 미국에 의한 세계질서 지배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탄도탄 요격미사일(ABM)조약이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부시 행정부의 MD체제 구축정책을 정면 반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러가 군사안보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시 행정부가 MD체제 구축정책을 계속해 나가면서 대만에 대한 안보지원을 확대하고 NATO의 동유럽 확대정책을 강행해 나갈 경우 중·

2 중·러간 전략적 협력 강화와 한반도

러간 정치·안보관계가 더 긴밀화 할 가능성이 높다. 중·러는 대내 경제 발전을 최우선시 하고 있지만,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는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전략적 연대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중·러와 미·일 4강의 이해가 첨예하게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중·러관계 강화는 이들의 대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무시하면서 세계질서를 주도하려 할 때, 중·러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러 사이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MD체제 구축문제 등으로 인하여 중·러와 북한 사이에 안보적 유대관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나 병력을 가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강대국이며, 러시아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이다. 그리고 이들은 한반도와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해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러관계 강화와 중·러의 한반도 정책 변화는 한반도 안보 및 통일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1990년대 이래 중·러관계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라 중·러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분석·전망하는 동시에, 중·러관계 강화가 동북아 및 한반도의 안보·통일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중·러관계의 전개: 과거와 현재

1990년대 들어 러시아와 중국 내부에서 번천복지(翻天覆地)의 변화가 나타남으로써 중·러관계에서도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소련이 12개의 독립국가연합으로 분열된 후 중·러는 관계정상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였고, 1994년 장쩌민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건설적 동반자관계’ 구축에 합의하였으며, 1996년 이후에는 미국에 의한 세계질서 지배에 반대하면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관계 발전을 모색해 왔다.

1. 관계정상화 시기

1989년 5월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의 중국방문은 30년간 지속된 중·소간 갈등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베이징 텐안먼광장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지식인들에 의해 점거되어 불가피하게 공식 환영행사를 인민대회당 내부에서 치른 후 열린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와 덩샤오핑(鄧小平)은 주권과 영토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불간섭, 호혜 평등, 평화공존 등 5개 원칙에 입각하여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동부지역 국경선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중·소는 정치·군사·경제·과학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관계정상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 4월에는 리펑(李鵬) 중국 국무원 총리가 소련을 방문하여 「변경지역에서 상호 군사력 감축과 상호 신뢰 구축에 관한 지도원칙 협정」과 「경제·과학기술 장기 협력강요」 등을 체결, 양국간 정치·경제·과학기술 협력기반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1991년에는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소련을 방문, 동부지역 국경선협정에 정식 서명하고 선린

4 중·러간 전략적 협력 강화와 한반도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중·소는 자국의 특색에 부합하는 발전방식을 채택해 나간다는 데에도 합의함으로써 개혁·개방정책 등 정책노선의 차이로 인한 갈등 발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¹⁾

동부지역 국경선협정 체결은 중·소관계를 정상적인 궤도로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서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중·소는 이 협정에서 ‘탈베그원칙’에 따라 선박운항이 가능한 수로는 하천 최저상의 중앙선으로 하고, 산악지대의 경우 산맥의 능선으로 하며, 항해가 불가능한 하천은 중앙선을 경계로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는 양국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하겠다. 1960년대 이래 중·소관계를 악화시켜 왔던 핵심 쟁점이 해결된 것이다.

중·소관계가 정상화의 길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소련을 계승하게 됨으로써, 1991년 12월 중국은 새로이 탄생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즉각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승인하였고, 중·러 지도자는 유엔 안보리 정상회담에서 회담을 갖고 과거 소련과 중국이 체결한 모든 조약과 의무를 준수하고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992년 2월에는 중국 전인대와 러시아 의회가 구소련 당시 체결된 동부지역 국경선협정을 비준하고, 국경선 표지작업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 선린우호정책을 전개한 이유는 러시아가 친서방정책을 채택하고 중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²⁾

1) 石澤, “論新時期的中俄關係,” 『國際問題研究』, 1996年 第2期 (1996. 4), pp. 1~2.

2) 張雅君, “當前中共與俄羅斯的關係,” 『中國大陸研究』, 第36卷 第12期 (1993. 12), p. 73.

그러나 중·러관계가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진행되지는 않았다. 소련이 붕괴된 후 중국은 소련과의 이데올로기적 차이와 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국가들의 혼란이 신장(新疆)과 시장(西藏) 등 중국 내부 안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계하였다. 그리고 국제경제 기구와 서방국가들로부터 자본유치 경쟁도 중·러관계 발전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³⁾ 특히 1989년 톈안먼사건 이후 동유럽과 소련에서 민주화가 진전되고 사회주의체제가 와해되자,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이들 국가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 지도부 내에서는 소련의 변화를 비난하는 여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붕괴와 이에 따른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안보위협 약화는 중국의 안보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주었다. 러시아는 대내 정치·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더 이상 군사력을 사용하여 영향력을 해외에 행사하기 곤란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국경지역에 배치하였던 군사력을 감축하는 한편, 중국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베트남과 인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과 경쟁하기보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중단하고 한국과 수교함으로써 북한이 중국에 경사되는 것을 용인하는 정책을 취하였다.⁵⁾

3) Guocang Huan, "The New Relationship with the Former Soviet Union," *Current History*, Vol. 91, No. 566 (September 1992), p. 253.

4) 1960년대부터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는 이념적 갈등이 제기되었다. 소련은 중국을 교조적 사회주의자로 비난하였고, 중국은 소련을 수정주의자로 공격하였다. 1980년대에도 중·소는 개혁·개방문제를 둘러싸고 노선갈등 양상을 보였다. 1990년대 초에도 중국은 동유럽과 소련에서와 같은 사태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군과 공안부서에 대한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언론통제를 심화하였다. 소련의 해체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국측 시각에 대해서는 沈傳烈, 程輝, "蘇聯解體與中國國家利益," 『地理知識』, 1992年 第8期 (1992. 8), pp. 30~31 참조.

6 중·러간 전략적 협력 강화와 한반도

소련의 해체와 러시아의 등장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게 된 중국은 러시아를 즉각 승인하고 과거 소련과 체결하였던 모든 조약을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중국이 러시아 및 신생 독립국가연합과 신속하게 외교관계를 설정한 것은 대만문제를 의식한 조치이기도 했다.⁶⁾

특히 중·러간 군사분야에서 관계진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89년 톈안먼사건과 중·소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러시아와 군사접촉을 재개하기 시작하였다. 톈안먼사건 발발로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자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회복시킬 필요성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90년대 들어 중·러간 군사접촉이 확대되고 무기 거래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⁷⁾ 1990년 4월 중국은 30년만에 처음으로 모스크바에 군사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6월 소련도 중국에 군사대표단을 중국에 보내 군사적 신뢰증진을 도모하였다.

결프전은 중국 인민해방군으로 하여금 군사 현대화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중국의 전략가들은 미국이 보유한 첨단군사무기의 정확성과 파괴력에 위협을 느끼고, 노후한 군사무

5) Guocang Huan, "The New Relationship with the Former Soviet Union," p. 254.

6) 대만은 중국이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을 승인하기도 전에 이들의 독립을 승인하고, 대만과 외교관계를 체결할 경우 경제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라트비아는 중·대만과 동시에 외교관계를 체결하고자 하였다.

7) 중·러간 군사접촉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이전부터 중·소간에는 군사무기 거래가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3억 1천만 달러의 무기를 구매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무기의 4배에 이른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8 March 1991, p. 11, Bin Yu, "Sino-Russian Military Relations: Implications for Asian-Pacific Security," *Asian Survey*, Vol. XXXIII, No. 3 (March 1993), p. 306에서 재인용.

기장비를 현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은 1990년 11월 서방국가와 체결한 무기감축협정을 이행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 잉여무기를 폐기하기보다는 중국을 비롯한 국가에 판매함으로써 외화를 확보하려 하였다.⁸⁾

이에 따라 중·소 사이에 무기판매 협상이 급진전되게 되었다. 1991년 3월 베이징에서 에어쇼가 개최되고, 5월에는 야조프 소련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군 지도자들과 접촉을 가졌다. 이어 친지웨이(秦基偉) 국방장관이 장쩌민 총서기를 대동하고 소련을 방문하였으며, 이로써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10억 달러 상당의 수호이27 전투기 24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하였다.⁹⁾

이 외에도 중국과 소련 사이에 해군 장비 판매협상과 핵 기술분야 협력이 이루어졌다. 1991년 8월 츠하오텐(遲浩田) 중국군 총참모장의 모스크바 방문시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해군장비와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당시 중국은 바르야그급 항공모함 구매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¹⁰⁾ 1992년 11월에는 옐친 러시아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중·러는 핵무기 기술과 우주분야 협력을 약속하였다.¹¹⁾ 그러나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무기판매정책은 일관적으로 최첨단무기를 판매하지 않고, 제한적인 양만을 수출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

경제면에서도 중·러관계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1992년 중·러간

8) *Ibid.*, p. 307.

9) *Far Eastern Economic Review*, 3 September 1992, p. 21.

10) *Jane's Defence Weekley*, 8 February 1992, p. 181.

11) 옐친 대통령 방중시 중·러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연구 협정」, 「변경지역에서 상호 군사력 감축과 군사 신뢰구축 양해비망록」, 「군사기술협력 양해비망록」 등 20여 개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People's Daily*, 2 January 1993; 石澤, “論新時期的中俄關係,” 『國際問題研究』, 1996年 第2期 (1996. 4), p. 3.

무역액이 52억 달러로 증가되었으며, 경제무역과학기술협력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과학기술 협력도 시작되었다.

2. 건설적 동반자관계 모색 시기

1993년 이후 중·러간 선린우호관계는 더욱 발전되었다. 그라쾨프 국방장관, 크레스니코프 총참모장, 체르노메르딘 총리 등 러시아 지도부가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중국측에서는 류화칭(劉華淸) 중앙군사위 부주석, 장완넨(張萬年) 총참모장, 츠하오텐 국방부장, 치엔치첸(錢其琛) 외교부장 등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관계개선을 도모하였다. 특히 1994년 9월 치엔치첸 외교부장의 방러시 중·러는 「서부지역 국경선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츠하오텐 방러시에는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군사안보적 신뢰증진을 모색하였다.

1994년에는 장쩌민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였는데, 이는 러시아 탄생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러시아를 방문한 것이었다. 정상회담에서 장쩌민과 옐친은 중요한 국제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다음과 같은 합의를 도출하였다. 중·러는 세계의 다양성과 국가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고, 대립적 정치·군사·경제집단 구축을 반대하며,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무력을 통해 상호 위협하는 것을 반대하며, 핵 확산방지조약을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²⁾

장쩌민 방러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중·러는 양국관계를 ‘건설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건설적 동반자관계는 평화공존 원칙에 입각하여 양국관계를 완전히 평등한 선린우호관계와 호혜

12) 石澤, “論新時期的中俄關係,” 『國際問題研究』, 1996年 第2期 (1996. 4), pp. 3~4.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동맹을 결성하지 않으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¹³⁾

이러한 원칙에 따라, 중·러는 「전략미사일 상호 불겨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 바, 이는 양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한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55킬로미터에 이르는 알타이산맥지역의 국경선문제와 관련된 「서부지역 국경선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중·러 국경선의 99% 이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되었고,¹⁴⁾ 1960년대 이래 지속된 중·러 국경선지역의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공동성명에서 상대방의 국가발전 정책을 존중하고 이념의 차이가 국가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는 점은 정책노선의 차이가 중·러관계에 더 이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중·러간 신뢰구축 조치가 진전을 보이게 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무기판매도 1990년대 초반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92년부터 1994년 기간에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17억 달러의 무기를 수입하여 러시아의 최대 무기판매 대상국이 되었다.¹⁵⁾ 1995

13) 중·러 공동성명문은 「人民日報」, 1994. 9. 4 참조.

14) 이로써 중·러간에는 영토문제로 인한 분쟁소지가 대부분 해소되게 되었다. 다만, 우수리강과 헤이룽강이 만나는 지점에 놓여있는 헤이샤쯔섬과 아바카이섬 등의 영유권문제에 대해서는 미정인 상태에 있다. 그러나 중·러는 이들 문제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과 공동개발 원칙에는 합의하고 있다. Rajan Menon, "The Strategic Convergence between Russia and China," *Survival*, Vol. 39, No. 2 (Summer 1997), pp. 103-104; 강원식, "러시아·중국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 12), pp. 41~46.

15) 당시 러시아가 해외에 판매하는 무기의 26%를 중국이 수입하였다.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1995* (Washington, DC: US

년 12월 류화칭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방러시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48대의 수호이27 전투기를 더 구매하기로 합의하고, 20억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생산에도 최종 합의하였다. 중·러간의 군사무기 거래는 1993년 군사협력협정 체결로 인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러시아 방위산업체가 중국에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에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종용함으로써 중·러관계가 급속하게 진전되었다.¹⁶⁾ 러시아는 군수산업체를 가동하고 실업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 가장 큰 고객인 중국과의 무기거래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중국이 러시아의 아태경제협력체(APEC) 가입을 지원하고, NATO의 동유럽 확대를 반대해 주기를 바라면서 중국과 관계개선에 임했던 것이다.

군사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신뢰구축 조치가 이루어졌다. 1992년까지 러시아는 몽고주둔 군사력을 완전히 철수하였고, 1995년부터 1996년까지 극동지역에 배치된 병력을 15만명 감축하였다. 1985년 이래 태평양함대도 50% 감축하였다. 1992년 12월 중·러는 국경지역 병력을 최소한도 수준으로 감축하고 상대방에게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100킬로미터 후방으로 철수하기로 약속하였다. 탱크, 전폭기, 전술핵무기 등 공격무기를 양국 접경지역에서 후방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1994년 중·러는 중앙아시아 3개국과 함께 접경 100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병력 이동상황을 통보하고 상호 군사훈련 참관 등에 합의하였다. 이 외에도 핵무기 선제 불사용, 상대방에 핵미

General Printing Office, 1996), pp. 153, 155.

16) 러시아 내에서는 중국을 잠재적 위협국가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방위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중국과 전략적 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Stephen J. Black, "Russo-Chinese Military Relations and Asian Security," *Issues and Studies*, Vol. 33, No. 11 (November 1997), pp. 59~61.

사일 불조준 등 신뢰구축 조치, 중국 북해함대의 블라디보스톡 기항, 러시아 함대의 칭다오 해군기지 기항 및 양국 해군간 공동 훈련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정치·안보 영역에서 어느 정도 신뢰가 구축됨에 따라, 중·러간 무역 규모도 빠른 속도로 증가되었다. 1991년 39억 달러에 불과하였던 중·러 교역규모가 1992년에는 58억 6천만 달러로 증가하고, 1993년에는 76억 8천만 달러로 확대되었다.¹⁷⁾ 이로써 중국은 러시아의 2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고, 러시아는 중국의 5대 무역상대가 되었다. 그러나 1994년에는 러시아가 비자발급 제도를 강화함에 따라 양국간 인적 교류가 감소되고,¹⁸⁾ 무역액도 50억 8천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경제무역분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러간 건설적 동반자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중국의 대러시아 무역 비중이 중국 전체 교역액의 2%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교역규모도 대폭적인 증감을 되풀이하였다.¹⁹⁾

그렇지만 중·러간에 갈등요인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었다. 중·러 사이에 인적·물적 왕래가 증가하고 상호의존도가 증대되었지만,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러시아 극동지역 주민들의 위협인식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러시아가 내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경제성장을 통해 급속도로 국력을 강화함에 따라, 러시아인들은 중국을 잠재적 위협국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은 러

17) 『人民日報』, 1994. 1. 29.

18) 1988년부터 1994년 이전까지 중국과 러시아는 상업용 여권소지자에 대해 비자발급을 면제해 주었다. 따라서 1993년 751,000명의 중국인이 러시아를 방문하였고, 777,000명의 러시아인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V. Portyakov, "Are the Chinese Coming? Migration Processes in Russia's Far East," *International Affairs*, Vol. 42, No. 1 (January-February 1996), pp. 132~140.

19) 茅原郁生, "緊密化中俄關係の表と裏," 『世界週報』, 1996. 12. 31, p. 12.

시아 전체 면적의 36%나 되지만 러시아 인구의 5%에 불과한 8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멀리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다. 반면 러시아 극동지역과 접경하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에는 1억 1천만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거 유입되자, 극동지역의 러시아인들은 중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국어화’하려 한다면서 중국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되었다.²⁰⁾

3.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구축 시기

1996년 4월 열린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중·러는 새로운 단계로 관계발전을 모색하게 되었다. 중·러 정상은 공동성명을 발표,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교통, 농업, 금융, 군사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합의하였다. 그리고 중·러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과 공동으로 「상하이 5개국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이 회의에서 중·러를 포함한 5개국은 「변경지역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협정」을 체결, 변경지역에 배치된 군사력이 상호 공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상대방을 겨냥하여 군사훈련을 하지 않고, 군사훈련의 규모·범위·횟수를 제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중·러는 변경지역에서 100킬로미터 지역 내에서 중요한 군사활동을 상호 통보하기로 하고, 군사훈련 참관단을 초청하기로 하고, 위협한 군사활동을 예방하기로 하고, 변경지역에서 군부대간 왕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²¹⁾ 한편, 12월 리평

20) Rajan Menon, "The Strategic Convergence between Russia and China," pp. 105-107; Alexander Lukin, "The Image of China in Russian Border Regions," *Asian Survey*, Vol. 38, No. 9 (September 1998), pp. 826-828.

총리 방러시 매년 정기 총리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등 실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도 중·러관계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97년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두 차례에 걸친 공식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중·러는 「국경병력 감축협정」을 체결하여 국경지역에서의 상호 신뢰를 강화하였으며, 「동부 국경선획정조약」을 체결하여 4,334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선문제를 대부분 타결짓게 되었다. 4월 장쩌민 주석 방러시 중국은 러시아와 3개 중앙아시아국가와 국경지역 100킬로미터 이내지역에 각기 13만 4천명 이하로 병력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중·러는 상호 무력 불사용·불위협을 약속하였고, 국경지대 병력주둔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등 군사적 신뢰구축에 합의하였다.²²⁾ 이로써 1960년대 이래 중·러간 분쟁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불신이 크게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1998년 2월에는 리펑 총리가 제3차 정기 총리회담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 국경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국수속을 간소화하기로 하는 한편, 「고속정 건조 협력」 및 「정부차관 채무해결 협정」 등을 체결하였다.²³⁾ 중동 평화문제 등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중·러는 이라크에게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미국에게는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외교적 수단을 통해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간다는 데에도

21) 「人民日報」, 1996. 4. 27; 「文匯報」, 1996. 4. 29.

22) 1997년 11월 중·러는 공동성명을 발표, 다극화 질서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쌍무간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국경선문제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타결하고, 경제무역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등 포괄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 “五國今簽邊境裁軍協定,” 「文匯報」, 1997. 4. 24.

23) “中俄聯合公報,” 「文匯報」, 1998. 12. 19.

합의하였다. 7월에는 러시아가 금융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키리엔코 총리의 중국방문이 이루어졌는데, 중국의 대러시아 경제지원 등 경제 협력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같은 해 5월에는 중·러 정상간 직통전화의 정식으로 개통되었는 바, 이는 중국 국가주석과 외국 정상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직통전화였다. 10월에는 세르기예프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중이 이루어져 쌍무 군사 관계 강화문제와 군사무기 판매문제 및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천명되었다. 대만해협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미·일·대만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문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세계 및 지역 안정과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반대하였다.²⁴⁾

11월 장쩌민 주석이 제6차 중·러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였는데, 이 회담은 옐친이 폐렴에 걸려 병실에서 개최되었다. 정상회담에서 국제 신질서 구축에 대한 의견 개진과 경제협력문제가 주요 의제로 상정되었다. “21세기에 즈음한 중·러관계” 제하의 공동성명에서 중·러는 국제질서의 다극화가 평등하고 민주적인 신국제질서 형성에 도움이 되고, 역사·문화·경제·사회 및 정치제도의 차이가 국가간의 관계를 결정해서는 안되며, 유엔의 역할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특정 강대국의 정치군사동맹 결성·강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주장하였다. 그리고 핵무기 확산과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반대하고, 변경지역에서 군사적 신뢰와 군축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아울러 중·러 정상은 남북한간 대화가 한반도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한반도문제가 아·태지역의 안정에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

24) 『明報』, 1998. 10. 22; 『文匯報』, 1998. 10. 23; www.insidechina.com/china/news/07.html.

였다.²⁵⁾ 그리고 서부지역 국경선 획정작업 완료를 선언한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서부지역 국경선문제가 최종 확정되게 되었다.

대만문제도 중·러간에 논의된 주요 의제였다. 정상회담이 개최된 후 러시아는 2개의 중국 또는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을 지지하지 않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대만이 유엔과 주권국가로서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며,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만문제에 대한 ‘4불정책’을 천명하였다. 장쩌민 주석도 체첸문제 등 러시아의 민족분리주의 문제에 대해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점을 밝혔다.²⁶⁾ 1998년 7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상하이 방문시 ‘3불정책’을 밝힌 후 러시아가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줌으로써,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고립시키는 데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1999년은 중국과 구소련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중·러간 전략적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었다. 주룽지(朱龍基) 총리가 2월말 러시아를 방문, 4차 총리 정기회담이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경제협력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양국은 20억 달러 상당의 시베리아 천연가스전 공동개발에 합의하고, 극동 아무르주의 발전소로부터 중국에 전력을 송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랴오닝성-바쉬키리아, 지린성-연해주, 상하이-아무르주, 신장자치구-알타이주 등 4개 지방정부간 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중국 내에 30억 달러 규모의 원자로 및 우라늄 농축공장 건설계약이 체결되었고, 수호이30 전투기 등 최신 군사무기의 대중국 판매 및 기술이전 논의를 지속하기로 약속하는 성과도 거두었다.²⁷⁾

이 외에도 양국은 총리간에도 핫라인을 설치하여 긴밀한 협의를 도

25) “世紀之交的中俄關係,” 『人民日報』(海外版), 1998. 11. 24.

26) www.peopledaily.com.cn/haiwai/199811/24/no-981124003007-1.html.

27) “中俄經貿合作宜迅速拓展,” 『文匯報』, 1999. 2. 27.

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코소보와 이라크 사태에 대해 무력사용보다는 정치적 해결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양국이 미국에 의한 패권질서 구축을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5월 8일 NATO의 전폭기가 유고주재 중국대사관을 폭격하여 중·미 관계가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된 후 중·러간 전략적 협력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중국대사관 피폭사건 직후 중·러는 정상간 직통전화 통화, 체르노미르딘 총리 특사 파견, 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미국의 패권주의적 행위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논의하였다. 중·러는 패권주의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특정 국가(미국)의 냉전적 사고와 군사동맹 강화정책을 비난하면서 NATO의 유고 공습을 중단하도록 요구하였다.²⁸⁾ 특히 NATO가 자신의 앞마당인 유고에 대해 수개월 동안 폭격을 가하는 데도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러시아는 중국을 이용하여 미국의 행동을 견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²⁹⁾

8월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하이 5개국회의에서도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그리고 '신간섭주의'에 대한 중·러의 반대입장이 적나라하게 표출되었다. 다극화 세계질서 구축을 주장하고, 1972년 「탄도탄요격미사일 제한조약」(ABM Treaty) 유지 입장과 전역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반대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후 중·러는 제54차 유엔총회에 「ABM조약

28) 엘친 러시아 대통령은 5월 10일 핫라인 전화를 통해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대사관 피폭사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이 중국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며, 중대 국제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주장하였다. 『人民日報』, 1999, 5. 11; www.xinhua.org/international/99611833142.htm.

29) 유고 주재 중국대사관 폭격사건 이후 중국은 러시아 등과 협력을 통해 미국에 대항하기보다는 미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치엔치첸 중국 외교담당 부총리는 우즈베키스탄 방문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대미정책이 변화하지 않았으며, 미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였다. “錢其琛在烏舉行中外記者招待會,” 『人民日報』, 1999. 6. 13.

준수 결의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국가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반대하는 여론을 선도하였다. 이 외에도 중·러 등 5개국은 인권문제가 내정간섭 구실로 이용되는 것을 반대하고, 지역안보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1999년 말 체첸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이 ‘양국론’을 제기하였던 상황에서 옐친과 장쩌민간 비공식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 바, 여기에서는 양국이 유엔헌장에 기초하여 21세기 세계질서를 다극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국가통합 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러시아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기존의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가 ‘특수한 국가 대 국가간의 관계’라는 대만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 주권회복 행사를 준비중이었던 중국은 대만문제 해결 등 국가통일이 절박한 과제였기 때문에 러시아측으로부터 대만문제에 대한 지지를 확인 받고자 하였던 것이다. 대신 중국은 체첸문제가 러시아의 내정에 속하며 체첸내 분리독립주의자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진압 행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체첸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체첸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바랐던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되었다.

2000년에 들어 중·러는 상하이 5개국회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방문, 리펑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러와 카시야노프 러시아 총리 방중 및 군사교류·협력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중·러는 미국에 의한 세계 패권질서 구축을 한 목소리로 반대하면서 다극화 질서 구축을 주장하였으며, 미국의 NMD, TMD 구상과 ABM조약 개정 반대 입장을 견지하였다. 러시아가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중국이 서부 대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교류도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중·러 사이에 안보협력이 강화된 주요 이유는 세계 신질서 구축에 대한 양국의 공통 인식,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반대 입장, 첨단 군사무기장비 거래 필요성 그리고 민족분리주의·테러·종교문제 등에 대한 일치된 입장에 기인하였다.

미국의 패권질서에 대한 반대 입장은 상하이 5개국회의와 푸틴 방중시에 강력하게 표명되었다. 타지크스탄 두산베에서 개최된 제5차 상하이 5개국 정상회담에서 중·러는 “세계 신질서 구축과정에서 다극화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국제정세 안정에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국제무대에서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력사용에 반대하며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해 유엔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미국의 ‘나토 신전략개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였다.³⁰⁾ 나아가 푸틴 방중시 채택된 『베이징 공동선언』에서 양국은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고,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고 세계질서 다극화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중·러 정상은 유엔 안보리의 권위 유지와 국제법 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³¹⁾

미국이 NMD, TMD 연구·개발을 지속함으로써 중·러간 안보적 이해관계가 더욱 심화되었는데, 중·러는 미국이 NMD, TMD 구상을 실

30) “中國倡建五國合作機制,” 『文匯報』, 2000. 7. 6.

31) 이 외에도 중·러는 지도자간 긴밀한 접촉과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변경지역에서의 안정유지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고, 대규모 살상무기 운반체제 확산을 막기 위한 기존 군비통제체제 유지를 위해 ABM조약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러시아는 대만에 대한 ‘4불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강조하고, 양국은 경제무역·과학기술 및 군사기술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베이징선언 공동선언문 전문은 『文匯報』, 2000. 7. 19 참조.

현하게 될 경우 자국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되고 군비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국에게 NMD, TMD 구상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제55차 유엔총회에서 「ABM조약 준수 결의안」을 다시 한 번 통과시켜 국제사회에 NMD, TMD 구상의 위험성을 환기시켰다. 또한 대만을 TMD 체제에 포함시키는 데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러시아가 적극 지지함으로써 중·러간의 안보적 신뢰가 한층 강화되었다.

중·러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는 첨단 군사무기장비 거래 등 군사교류·협력이다. 츠하오텐 중국 국방부장, 클레바노프 러시아 방위산업 담당 부총리, 쉬차이호우(徐才厚)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 세르기에프 러시아 국방부장 등 군사지도자 상호 교환방문이 이루어졌으며,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제1차 5개국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특히 츠하오텐 국방장관 방러시 양국은 「군사협력 확대에 관한 비망록」을 교환하였는데, 여기서 양국은 군사정보 교류기구 설치, 전투기·함정·미사일 등 러시아제 첨단무기 제공, 합동군사 훈련 강화, 향후 15년간 군사 무기장비 공동개발 등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최첨단 군사무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8억 달러를 지불하고 신형 구축함 2척을 구매하였고, 키에프급 구형 항공모함을 도입하였으며, SU-30 전폭기 구매 및 라이선스 생산기술 인도에 합의하고, R-77 공대공 미사일 100기 구입 및 관련기술 인도에 합의하는 한편, SS-N-22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 24기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더욱이 중국은 미국의 반대로 이스라엘과의 조기 공중경보기 구입 협상이 결렬된 뒤, 2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제 A-50 조기 공중경보기 4대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이 공중경보기는 2003년 이내에 인도될 예정이다. 현재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무기수출 대상국이며, 중국내 연구소에 2,000명에 이르는 러시

아 군사기술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중·러관계 발전과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특정 국가에 의한 세계질서 주도를 반대하고 세계질서 다극화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중·러는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목적이 미국을 견제하려는 데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주장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통해서 볼 때 실제로는 미국에 의한 패권체제를 공동으로 견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³²⁾ 중·러는 냉전시기의 안보관 폐기를 주장하고, 국가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무력을 사용하여 타국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유엔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³³⁾ 사실 이러한 중·러의 주장들은 21세기 세계 신질서를 미국이 독단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선 중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고려 하에 러시아와 관계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자 한다. 1996년 3월 중국의 미사일 발사로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은 니미츠호와 인디펜더스호 등 두 대의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하여 중국을 위협하였다. 이후에도 미국은 일본과 「신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하여, 일본 주변지역사태에

32) Lee Hockstader, "Russia and China Agree: Washington is too Boss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4, 1997; "Moscow Looks East to Counter NATO,"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3, 1997.

33) "中俄聯合聲明促棄冷戰思惟," 「文匯報」, 1997. 4. 24.

협력하여 대응하기로 하는 등 중국견제 의도를 밝혔다.³⁴⁾ 이 외에도 당시 중국은 미국과 인권, 경제협력, 핵무기 실험문제 등을 둘러싸고 긴장관계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이 중국 포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판단하고,³⁵⁾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러시아와의 관계발전을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둘째, 러시아와 대만과의 관계발전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대만문제 해결을 3대 정책목표의 하나로 설정해 온 중국은 러시아로 하여금 하나의 중국원칙을 지지하도록 함으로써 대만의 외교영역 확대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셋째, 자체적으로 군사 현대화를 도모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장비를 도입할 필요에서 러시아와 군사 관계 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

넷째, 북방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도 중국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구축을 추진하게 된 중요한 이유였다. 러시아는 중국과 4,300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국경선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이다. 러시아는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 되면 대만문제 해결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등 중국에게 위협이 되고, 러시아의 내부 혼란이 심화될 경우에도 중국의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회교분리주의자들이 신장과 시장의 분리독립 운동을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한다.³⁶⁾ 한편, 199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 역시 중국과 전략적

34) 張大林, “評日美安全保障聯合宣言,” 『國際問題研究』, 1996年 第4期 (1996. 10), pp. 24~28.

35) Steven Mufson, “U.S.-Japan Accord Fans China’s Fears,” *Washington Post*, April 19, 1996.

36) 따라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국가 지도자들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³⁷⁾ 첫째, 엘친 정부는 집권 초기 친서방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서방국가들로부터 충분한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강대국 외교를 표방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서방국가들에게 러시아가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는 NATO를 동유럽지역으로까지 확대하려는 미국의 전략 구상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전략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던 것이다.

둘째, 러시아는 대내 경제회복을 위해 유리한 주변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에 따라 중국과 우호협력관계를 심화시켰던 것이다. 대내적으로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긴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경제회복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과 선린우호협력 확대를 모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중국으로부터 발전 경험을 도입하기 위해서도 중국에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³⁸⁾

셋째, 체첸의 분리독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러시아는 중국의 지지를 확보해야 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국제정치 무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체첸의 독립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낼

과 회담시 민족분리주의의 문제에 대해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해 왔다. 최근에도 중국은 알카에다 조직이 중국 신장지역의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해 왔다면서, 테러리스트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China links Islamic separatists to terrorism," asia.cnn.com/2001/WORLD/asiapcf/east/11/15/china.ughurs/index.html

37) 孫國祥, "北京與莫斯科戰略協作伙伴關係之形成與探析," 『中國大陸研究』, 第40卷 第8期 (1997. 8), pp. 89~90.

38) 엘친은 1996년 4월 상하이를 방문을 마치면서 기자들에게 '상하이 경험'을 배우고, '러시아 특색의 시장경제'를 건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明報』, 1996. 4. 27.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는 타지크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 이슬람 과격분자들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³⁹⁾

39) "In Sign of Amity, Russia and China to Limit Border Troop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5, 1997.

Ⅲ.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개념과 특징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래 동반자관계라는 개념적 틀을 동원하여 세계 각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대내 경제발전에 유리한 외부환경을 조성하고 21세기 중국의 국제위상을 제고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과는 ‘건설적 전략동반자관계’로 관계를 발전시키고, 일본과는 ‘우호협력 동반자관계’, 프랑스와는 ‘전면 협력동반자관계’, 인도와는 ‘건설적 협력 동반자관계’, 한국과는 ‘전면 협력동반자관계’로 관계를 증진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세계 각국에 적용하는 동반자관계의 개념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바, 중국이 러시아와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개념과 특징을 분석하기로 한다.

1.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개념

가. 중국의 대외관계와 동반자관계

중국은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면서 이념이나 체제와 관계없이 세계 모든 국가와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려 하고 있으나, 긴밀도에 따라 대체적으로 5개 유형의 국가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⁴⁰⁾ 첫째로 혈맹관계를 들 수 있는데, 현재 중국이 형식적으로나마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북한 한 나라뿐이다. 중국은 현재까지도 북한과 자동 군사개입조항을 담은 동맹조약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국의 체제변화와 국제환경의 변화로

40) www.joins.com/news/2000/04/.../int20000409200124102160.htm.

인하여 중·북 군사동맹조약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 세계 어떤 나라와도 동맹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⁴¹⁾ 엄격한 의미에서 중국이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전통적 우호협력관계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국가들로서는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거나 대부분의 영역에서 전략적으로 긴밀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다. 현재의 중·북한관계, 중·파키스탄관계 및 중·쿠바관계를 이들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중국이 무상으로 최소한도의 정치·경제·군사적 원조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들이다.

셋째로는 동반자관계(伙伴關係)이다. 중국이 의미하는 동반자관계는 선린우호관계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정치·경제·군사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협력과 대화가 활발하게 유지되는 단계를 지칭한다. 국가간에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으며 상호존중과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공통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⁴²⁾ 그러나 중국은 이 단계에서 국가들간에 사안에 따라 이해대립도 병존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수교국들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과 동반자관계를 형성하였거나 동반자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로는 선린우호관계(睦隣友好關係)이다. 선린우호관계는 서로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일부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한 관계를 지

41) 亓成章, 王堅紅, 『當前國際環境與中國對外戰略, 方針, 政策』(北京: 黨建讀物出版社, 2000), pp. 228~229; 劉華秋, “指導新時期對外工作的強大思想武器—學習鄧小平外交思想的體會,” 『人民日報』, 2000. 7. 13.

42) Bates Gill, “Contrasting Visions: United States, China And World Order,” Remarks presented before the U.S.-China Security Review Commission Session on U.S.-China Relationship and Strategic Perceptions, August 3, 2001, pp. 6~15.

칭하는 것으로, 주로 1990년대 초반 중국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15개 국가와의 관계를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영토문제와 민족문제 등으로 잠재적 갈등을 벌일 수 있는 관계에 있으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여 신뢰관계를 증진시켜 나가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이 ‘중국위협론’을 제기하면서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부터 중국은 주변국가들과 선린우호관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해 왔다. 중국은 적어도 이들 주변국들이 중국에게 적대적인 국가로 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 증대를 통해 신뢰를 축적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에 있는 국가들과는 경제·문화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접촉을 전개하고, 정치·군사적 교류와 협력은 제한적으로만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순 수교국은 중국이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가장 긴밀도가 낮은 국가들이다. 이들은 중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별다른 교류가 없고 중국의 경제·안보 이익에 커다란 이해관계가 없는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와는 사안에 따라 언제든지 이해가 충돌할 수 있고, 외교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는 ‘불안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다. 니제르와 루완다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유럽의 마케도니아와 같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을 단순 수교국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동반자관계의 개념

상기한 것처럼,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동반자관계는 우호협력관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된 중국의 국익에 중요한 나라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전방위 외교정책을 추구하면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동반자관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는데, 국가들에 따라 동반자관계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다. 여기서는 우선 중국이 사용하는 동반자관계의 개념을 검토하기로 한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동반자’(伙伴)라는 단어는 협력하여 공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험을 함께 겪고 이익을 함께 나누는 사이이다. 원래는 고대 중국의 군대에서 사용되던 ‘火伴’에서 유래한 것으로 같은 불로 함께 밥을 지어먹는 한 병영내 대원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였다.⁴³⁾

국제무대에서 동반자관계는 국가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관계를 지칭한다. 동반자관계를 추구하는 국가간에는 서로 상대방을 적대시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고, 쌍방 사이에 공동의 이익이 존재하고, 이러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⁴⁴⁾ 그리고 국가간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동반자관계를 구성하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타국을 적대시하지 않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한다는 점에서, 동반자관계는 동맹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중국이 의미하는 동반자관계는 오히려 협력안보 개념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동반자관계가 지향하는 최종 목적이 동맹을 결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정치·안보적 신뢰를 증진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⁴⁵⁾

43) 『辭海』, 縮印版(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89), p. 252.

44) 蘇浩, “中國外交的伙伴關係框架,” 『世界知識』, 2000年 第5期(2000. 2), p. 11.

45) 군사동맹을 통한 안보와 협력안보 개념에 대한 중국의 시각이 잘 나타난 글로는 閻學通 等, 『中國崛起—國際環境評估』(天津: 天津人民出

중국이 세계 여러 나라들과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강조하는 점은 내정불간섭 원칙과 구동존이(求同存異) 원칙이다. 중국은 상대방 국가의 정치이념과 체제, 사회제도, 경제발전 방식 그리고 역사문화적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국에게 이념과 발전방식 등을 강요하는 사이에서는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국가간에 분쟁과 갈등 요인들을 덮어두고 가능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해야만 국제질서의 안정과 평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내정불간섭과 구동존이는 동반자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원칙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동반자관계는 분쟁을 협상과 대화, 즉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21세기 미래를 지향하는 개념이다.⁴⁶⁾

그리고 중국은 동반자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촉 채널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최고 지도자간 정기적이거나 빈번한 접촉이 있어야 하며, 총리급 접촉, 외교부장, 국방부장, 경제무역부장간의 정기 회담이 개최되어야 하며, 정부 각급 실무자간 협의와 정부관리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제2트랙 형태의 활발한 교류·접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⁴⁷⁾

다. 동반자관계의 유형

중국이 21세기 대외관계 발전 목표로 제시하는 동반자관계는 국가에 따라 상이한 명칭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각국과 다양한 형태의 동반자관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체적으로 전략 동반자관계, 전면 동반자관계, 협력 동반자관계 그리고 건설적 동반자

版社, 1997), pp. 226~229 참조.

46) 蘇浩, “中國外交的伙伴關係框架,” p. 12.

47) 蘇浩, “中國外交的伙伴關係框架,” p. 11.

관계 등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까지 러시아, 미국과 전략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는데, 전략 동반자관계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이익을 공유하고 중대 문제에 대해 견해가 일치하거나 유사한 관계를 의미한다.⁴⁸⁾ 특히 민감한 군사안보 영역에까지 협력이 가능한 관계를 지칭한다. 그리고 전략 동반자관계는 협력의 범위를 쌍무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무대에까지 확대하는 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전략 동반자관계는 중국이 추구하는 동반자관계 중 가장 차원이 높은 관계라고 하겠다.⁴⁹⁾ 중국이 러시아, 미국과 구축하려는 전략 동반자관계는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전면 동반자관계가 있는데, 이는 프랑스, 캐나다, 파키스탄, 영국과 2000년 10월 이후 한국과의 관계를 지칭할 때 사용되고 있다. 경제·문화뿐만 아니라 정치 및 안보 영역에서도 협력이 가능한 국가와의 관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협력 동반자관계가 상당 정도로 성숙된 단계를 의미한다. 특히 이는 한·중관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방중시 중국은 한국과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데 합의하고, 2000년 10월 주룽지 총리 방한시 한·중관계를 전면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48)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은 중국을 경쟁자로 간주해 왔으나, 2001년 10월 상하이 아·태경제협력체 지도자회의시 부시 대통령은 중국을 동반자로 재규정하였다. 미국은 여전히 테러 대처 등 국제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49) 중국이 사용하는 전략 동반자관계도 긴밀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1996년 이후부터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라고 지칭하고, 1997년 이후 미국에 대해서는 건설적 전략동반자관계로 부르고 있다. 조지 W. 부시 등장 이후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전략 동반자관계보다도 건설적 동반자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한·중간에 합의된 협력동반자관계가 주로 경제협력에 치중된 개념이었다면, 전면 협력관계는 정치·안보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념이다.⁵⁰⁾

<표-1> 중·러, 중·미 전략 동반자관계 개념

	중·러관계	중·미관계
명칭	전략 협력동반자관계(1996. 5)	건설적 전략동반자관계(1997. 10)
개념	선린우호 평등협력 공동발전 동맹결성 반대 제3국 불거냥 패권 반대 불대항	상호 우호 협력 강화 상호 평등존중 동맹결성 반대 타국 불거냥 불대항
협력 메카니즘	정례 국가원수 회담 매년 1차 총리회담 부총리회의 외무장관 주재 「평화발전위원회」 회의 정례 국방장관회담	국가원수 회담 장관급 회담 차관급 회담 정례 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정례 재정위원회 회의
협력 범위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강화 국제문제 협력 강화 지역협력 강화 쌍무 협력 강화	세계문제에 대한 협의 지역문제 협의 쌍무 협상

50) 김대중-주룽지 회담 개최 이후 한·중은 1998년 합의된 ‘경제협력 중심의 동반자관계’를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전면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한국일보』, 2000. 10. 19.

협력 동반자관계는 동남아국가연합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들과 쌍무문제와 국제문제에 있어서 많은 공동의 이익이 존재하지만, 일부 문제에서 갈등 요소가 상존하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국가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인도와 건설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는데, 건설적 동반자관계는 전략적으로 중국과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와의 관계를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들 국가와는 경제·통상, 인권, 대만문제, 세계 및 지역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쉽게 해소하기 어려운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를 ‘건설적’ 전략 동반자관계로 규정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표-2> 중국의 동반자관계 유형

동반자관계 유형	상 대 국	연 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러시아	1996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파키스탄	1996
건설적 동반자관계	인 도	1996
전면적 동반자관계	프랑스	1997
건설적 전략동반자관계	미 국	1997
협력 동반자관계	동남아국가연합	1997
전면적 동반자관계	캐나다	1997
건설적 동반자관계	유럽연합	1998
전면적 동반자관계	영 국	1998
협력 동반자관계	한 국	1998
협력 동반자관계	일 본	1998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한 국	2000

2. 중·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특징

II장 3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는 1996년 이래 상호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합의하고 각종 채널을 동원하여 관계증진을 도모해 왔다. 현재 중·러가 추구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는 다음과 같은 합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전략적 관계는 협력의 범위를 지칭한 것으로서 중·러 협력관계를 쌍무관계에 국한시키지 않고 세계적 차원으로까지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유엔이나 아·태경제협력체 등 국제기구 내에서도 협력을 추구하고 에너지, 대량살상무기, 국제테러 등 전지구적 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협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러는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목적이 제3국을 겨냥하려는 데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으나, 쌍무문제와 국제문제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3국과 이익 충돌이 일어날 때에는 이들 국가에 대해 공동 대응하게 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러 사이에 전략적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NATO의 동유럽 확대문제와 미국의 MD체제 구축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러는 미국이 체코, 헝가리, 폴란드를 NATO에 가입시키고 기타 동유럽 국가들로까지 NATO를 확대하려는 것은 이들을 미국의 세력범위로 편입하여 초강대국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판단한다. 따라서 중·러는 NATO를 냉전시대의 산물로 보고, 해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⁵¹⁾

중·러는 미국이 MD체제를 구축하려는 데 대해서도 공동 전선을 형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양국은 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51) 중·러 공동성명문 참조, 『人民日報』, 1997. 4. 24. 그러나 최근들어 러시아는 서방국가들에게 NATO 가입 가능성을 밝힘으로써 서방국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

MD체제 구축에 따라 예상되는 세계 군비경쟁 심화 등 부작용을 지적하고, 유엔 총회 등 국제무대에서 ABM조약 유지·강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중·러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1997년 4월 제네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중국인권문제를 회의안건으로 상정하려는 데 대해서 러시아가 기권표를 행사함으로써 미국의 의도가 실현되는 것을 저지하였으며, 2001년 4월 18일에도 러시아는 미국이 제출한 중국인권 비난결의안이 정식 의안으로 상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국이 제출한 의안이 통과되도록 지원하였다.⁵²⁾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지역 다자협력 추진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1996년 5월부터 매년 한 차례씩 개최되고 있는 상하이 5개국회의는 중·러 접경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을 도모하고, 민족분리주의·종교극단주의·국제테러를 방지하고, 국제문제에 대해 컨센서스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둔 지역 다자협력대화체이다. 중·러 정상은 매년 이 회의에 참석하여 회담을 가짐으로써 상호 신뢰와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6월 상하이에서 개막된 6차 회의에서는 우즈베크스탄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시키고, 「상하이 협력조직」(SCO)으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상하이 협력조직은 미국이 배제된 지역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되고 있고, 중·러는 이를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는 기구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⁵³⁾

52) 1990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은 중국내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유엔 인권위원회에 중국인권 비난 결의안을 상정하려 하였으나, 매년 중국과 제3세계 국가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顧德偉, “美國反華議案屢遭失敗的紀錄,” 『人民日報』, 2000. 4. 19.

53) Bates Gill, “Shanghai Five: An Attempt to Counter US Influence in Asia?” www.brook.edu/views/op-ed/gill/20010504.htm; 翁明, “上海五國:新的安全模式,” 『人民日報』, 2001. 5. 11; 王桂芳, “上海五國機制:中國國際地位提高的見證,” 『人民日報』, 2001. 6. 15; 夏義善, “發展中的上

중국은 신장과 시장 등 서부지역의 민족분리주의자들과 극단 종교 주의자들이 중국의 통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⁵⁴⁾ 러시아 역시 러시아 인구의 15%가 넘는 이슬람민족이 독립을 추구하거나 과격한 테러 행위를 취하게 될 경우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특히 체첸과 같은 이슬람민족이 외부의 민족분리주의 세력과 연결될 경우 러시아는 큰 혼란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중·러는 이슬람민족이 다수를 차지하는 중앙아시아에서 안정이 유지되도록 하고 테러행위에 대처하는데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⁵⁵⁾

유엔의 기능과 권한 강화도 중·러가 국제무대에서 공통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되고 있다. 중·러는 미국이 유엔을 통하지 않고 이라크문제와 코소보분쟁 등 국제문제를 NATO를 앞세워 무력으로 해결하려 하였을 때마다 미국의 행위를 패권행위로 규정하면서 비난해 왔으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보복 공격을 가하는 과정에서도 유엔 안보리가 테러리즘에 대한 투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둘째, 협력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은 중·러관계의 성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 중·러는 구속력과 의무를 요구하는 동맹을 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협상과 합의에 기초하여 협력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상호 존중하고,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관계를 발전시키고, 안보적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국제문제에서 상호 협조를 강화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러가 정치적 상호존중 입장을 강조하

海五國機制,”『國際問題研究』, 2001年 第3期 (2001. 5), pp. 34~38.

54) 夏義善, “發展中的上海五國機制,” p. 37.

55) 趙龍庚, “試析中俄安全利益中的伊斯蘭主義,”『現代國際關係』, 1998年 第10期(1998. 10), pp. 10~14; 黃慧珠, “綜述: 普京爲什麼支持布什打擊恐怖主義,”『人民日報』, 2001. 10. 4.

는 것은 이데올로기와 사회제도의 차이가 양국 관계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중·러는 대내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인 국가정책 목표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경제협력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러는 경제교류를 추진하기 유리한 여건에 있다. 그리고 거대한 중국은 러시아의 저급 공산품 수출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값싼 방직, 식품 등 경공업제품은 러시아의 생필품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청량제가 될 수 있다. 중국이 2000년부터 서부지역 대개발을 추진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실크로드를 연결하려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이 완공된다면 중·러간 경제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중·러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는 21세기를 지향한 것으로서 이미 형성된 것이 아니라 양국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중국은 다극화의 진전이 중국의 경제발전과 세계 평화와 안정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러시아도 세계질서의 다극화가 강대국 지위 회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러가 추구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하에서 중·러는 21세기 다극화 질서 구축을 중요한 전략목표로 삼고 있다.⁵⁶⁾

넷째, 중·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는 다음과 같은 협력 메카니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공식 정상회담이 상대방 수도를 오가며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상하이 5개국회의시에도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따라서 해마다 적어도 2차에 걸쳐 중·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고 지도자간 핫라인을 통해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해마다 한 차례씩 총리회담(1996.

56) 馮玉軍, “對中俄戰略協作關係的再思考,” 『現代國際關係』, 1998年 第8期 (1998. 8), p. 3.

12, 리펑 총리 방러시 합의)이 개최되고 있으며, 부총리가 주재하는 공동회의, 외교부장 회담 및 외무차관이 주재하는 「평화와 발전위원회」 등이 열리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러는 주요 국제 문제를 사전 협의하고 사후 통보하고 있다.⁵⁷⁾

다섯째, 중·러는 2001년 7월 장쩌민 주석 방러시 체결한 「선린우호 협력조약」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제도적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중·러간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은 냉전시기의 동맹조약을 복원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러간 협력관계가 전방위에 걸쳐 구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징표로 볼 수 있다.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에서 상호 주권과 영토 존중,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 의거하여 선린, 우호, 협력, 평등, 신뢰의 전략협력 동반자관계를 장기적·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2조에서는 상대방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사용 위협을 가하지 않기로 하고, 상대방에 대해 경제 등 기타 압력수단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상호간의 분쟁을 유엔 헌장의 규정과 기타 공인된 국제법 원칙을 준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중·러는 핵무기 선제 불사용과 전략핵탄두 상호 불겨냥에도 합의하였다. 3조에서 중·러는 상대방이 자국의 상황에 의거하여 선택한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발전 방식을 존중하기로 하였다. 4조와 5조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국가통일과 영토보존 정책을 지지하고, 러시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이며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6조에서는 중·러 변경지역을 영구 평화우호지대로 건설하기로 하였으며, 7조에서는 변경지역에서 군사적 신뢰를 강화하고 상호 군사력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양국

57) 鄭羽, “中俄戰略協作伙伴關係的由來,” 『文匯報』, 1997. 11. 7.

은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도 이것이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하였다. 총 24 조로 이루어진 조약에서 중·러는 이 밖에도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경제무역·과학기술·에너지·금융·항공·정보기술·교육·위생 등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중·러는 테러, 분리주의, 극단주의, 마약, 불법이민 문제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⁵⁸⁾

58)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 전문은 www.fmprc.gov.cn/chn/15155.html 참조.

IV. 21세기초 중·러관계 변화 전망

향후 중·러관계 발전 방향은 이들의 대내 정치·경제 상황과 미국의 세계전략 등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대내적 요인이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중·러가 대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국제사회로의 편입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외환경 요인이 양국관계 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중국과 러시아의 상대방에 대한 정책결정에 미치는 대내외적 요인을 분석하기로 한다.

1. 중·러의 대외정책 결정 요인

가. 중국

중국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유지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부 안정유지와 경제발전에 대한 요구 때문이다. 개혁·개방정책 전개 이후 중국의 핵심 대외정책 기조는 대내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러시아는 중국과 4,300 킬로미터나 되는 긴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고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강대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신장과 시장지역의 민족분리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타지크스탄과 키르기즈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이슬람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전략적으로 러시아와 안보협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를 보는 중요한 관점중의 하나는 미국에 의한 세계질서 지배문제이다. 중국은 21세기 세계질서가 기본적으로는 평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강대국의 패권정책이 세계질서 안정을 위협하는 심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⁵⁹⁾ 중국의 지도자들은 21세기 세계질서를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평가하고, 미국에 의한 유일 패권지배 체제에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과 전략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전체 정책을 강화할수록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강화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중·러는 규모면에서나 국력면에서 거대한 국가이지만, 21세기에도 양국관계에서 미국 요인이 가지는 중요성을 경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⁶⁰⁾

경제적인 요인도 중국으로 하여금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1992년 개혁·개방정책을 가속화한 후 중국은 원유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향후 중국이 7-8%대의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게 될 경우, 중국은 더 많은 자원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전망이다. 결국 중국은 천연가스와 원유가 대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⁶¹⁾

대만문제는 중국이 해결해야 할 3대 국가정책 목표의 하나다. 중국은 ‘일국양제’ 원칙 하에 평화적으로 대만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대만이 독립을 기도하거나 외부세력이 대만문

59) “新世紀初國際形勢的幾個特點,” news.xinhuanet.com/world/20010514/560154.htm

60) 이에 대해서는 Li Jingjie, “Pillars of the Sino-Russian Partnership,” *Orbis*, Vol. 44, No. 3 (Fall 2000), pp. 532~538 참조.

61) 중국과 러시아는 2001년 체결된 선린우호협력조약에서도 에너지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夏義善, “중·러 석유·천연가스 협력의 현황과 전망,” 『극동문제』, 2001년 6월호 (2001. 6), pp. 108~124.

제에 개입할 경우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할 정도로 대만문제는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민감한 사안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장쩌민 주석은 대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신이 중국역사에서 국가통일 대업을 달성한 위대한 지도자로 남기를 원한다. 그러나 대만정부는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면서 러시아 등 국제사회와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일단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대만과 관계개선에 합의하게 된다면, 중국에게는 외교적으로 커다란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도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⁶²⁾

장쩌민과 리펑, 치엔치천 등 중국의 최고지도자들이 젊은 시절 장기간 러시아에 체류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중·러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쩌민은 1955년 모스크바 자동차공장에서 1년 동안 연수한 경험이 있고, 리펑은 1948년 모스크바 동력대학에서 청년기를 보낸 바 있으며, 중국 외교담당 부총리인 치엔치천은 1955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외교관 생활을 즐긴 러시아담당 부서에서 보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 친근감을 갖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지도자들이 러시아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러시아와의 갈등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협력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⁶³⁾

2002년과 2003년 장쩌민, 리펑, 치엔치천 등 중국의 최고지도자 중의 일부가 정치국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⁶⁴⁾

62)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들은 접촉 시마다 대만문제와 체첸문제에 대한 상대방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63) 장쩌민 주석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직통전화로 통해 쌍무관계와 국제 현안에 대해 빈번하게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차기 국가주석 물망에 오르고 있는 후진타오 부주석과 원자빠오 그리고 쩡칭훙 등이 테크노크라트 형의 지도자라는 점에서, 장쩌민시대 이후 중국이 현재의 정책기조를 대폭 전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러한 점은 중·러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념분쟁과 국경충돌까지 겪었던 불유쾌한 역사적 경험과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두 강대국이 긴 국경선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러관계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중·러는 국경선협정을 통해 국경선문제를 대부분 해결하였지만, 아직도 일부 도서지역 영유권문제에 대해 완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정책이 중·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중·러관계를 1950년대와 같은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은 대내 경제건설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서방국가들을 자극하는 정도로까지 러시아와 정치·군사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나. 러시아

러시아에서는 대중국 정책을 둘러싸고 대체적으로 두 가지 주장이 전개되고 있다. 첫째로는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미국 등 서방국가와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중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되면 대외 팽창정책을 추구한다는 견해를 강조한다. 또한

64) 중국에서는 여전히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핵심 대외정책을 결정할 때 당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Lu Ning, *The Dynamics of Foreign-Policy Decisionmaking in China* (Boulder, Colorado: Westview, 2000) 참조.

중국 동북지역의 많은 중국인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유입되어 결국은 러시아가 중국화 할 것이라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서방의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이 러시아의 경쟁상대가 되고 있다면서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지정학적으로도 중국과 러시아는 긴 국경선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의 지도자들은 이 지역이 중국화할 것을 우려하여 중국과의 관계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을 따르는 러시아의 지도자들은 중국에게 공격무기 판매를 자제하고 방어무기만을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⁶⁵⁾

둘째로 러시아 지도부 내에서는 미국보다는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동유럽으로 확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미국이 체첸 분리주의자의 입장을 지지하고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구축하려는 데 대해서도 극도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러시아 지도자들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견제정책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강화를 제안한다.⁶⁶⁾

러시아에서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강조하는 목소리는 특히 군산복합체에서 제기되고 있다.⁶⁷⁾ 1990년대 이래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연간

65) Alexander Lukin, "Russia's Image of China and Russian-Chinese Relations," www.brook.edu/fp/cnaps/papers/lukinwp-01.htm.

66) 1998년 말 프리마코프 총리는 러시아-중국-인도 3국간 전략동반자관계 구축을 제의한 바 있다. Boris Volkhonskiy and Andrei Ivanov, "Beijing has let Primakov down," *Kommersant-Daily*, December 24, 1998, p. 4.

67) Alexander A. Sergounin, Sergey V. Subbotin, "Sino-Russian Military Cooperation: Russian Perspective," *Regional Studies*, Vol.

1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입하여 러시아 군수산업의 생존에 큰 힘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무기수출 대상국으로 남아 있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군산복합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강조하는 이익집단이 될 것이다.

상기 두 가지 극단적인 대외정책 노선은 러시아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다. 1990년대 초반 옐친이 친서방 일변도 정책을 추구하였으나, 러시아는 서방으로부터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구소련시기 동맹국과의 관계가 약화되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를 경시하거나 자극할 경우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는 있지만,⁶⁸⁾ 대내 경제회생이 시급한 상황에서 서방국과의 관계를 경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 등 현 러시아 지도부는 친서방정책과 친동방정책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러시아의 국익에 가장 부합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⁶⁹⁾ 러시아 대내 안정과 발전에 미치는 서방의 중요성과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비중을 고려할 때, 현 푸틴 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는 큰 변화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향후 러시아는 대중국정책을 전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첫째로는 국제문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관계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바라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전략적 연대를 지속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이에 중·러 정상은 2001년 선린우호협력조약에서도 양국간 협력관계를 장기간에 걸쳐

15, No. 4 (December 1997), p. 24.

68) Alexander Larin, "Russia's Chinese Policy under President Vladimir Putin," *Far Eastern Affairs*, No. 3, 2001 (May-June 2001), pp. 8~9.

69) www.president.kremlin.ru/events/45.html; Alexander Larin, "Russia's Chinese Policy under President Vladimir Putin," pp. 8~9.

지속해 나간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둘째로는 민족분리주의와 테러문제 등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이다. 앞으로도 러시아는 체첸의 분리주의자들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회교 극단주의자들의 독립요구와 테러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2001년 6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6차 상하이 5개국회의에서도 중·러 정상은 민족분열주의, 종교극단주의, 국제테러를 배격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러시아와 중국은 체첸문제, 대만문제 및 중국 서북부 소수민족문제로 상호 협력해야만 하는 처지이다.

셋째로는 군사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도 대내 경제건설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긴 국경선 지역을 평화지대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러시아는 중국과 선린우호관계 발전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의 최대 무기수출 대상국이라는 점도 중·러간 군사안보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넷째로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국과 긴밀하게 교류해야 한다.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중국의 노동력이 필요하고, 이들 지역의 안정유지를 위해서도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러시아 정책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대중국정책도 미국 변수가 가지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유럽 확대정책을 강화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견제정책을 심화할수록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강화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미국이 ABM조약을 준수하고 러시아 내정에 대한 간섭을 축소하는 등 유연한 정책을 전개한다면 러시아가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여지는 그만큼 감소될 것이다.

2. 21세기 초 중·러관계: 실리에 기초한 전략적 제휴

21세기 초 예상되는 중·러관계로 적대국관계, 동맹관계, 선린우호관계 등을 상정할 수 있다. 긴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고 러시아 내에 중국에 대해 위협인식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⁷⁰⁾ 중·러관계가 1960년대와 같은 적대적인 상태로 변화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양국 공히 대내 경제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관계를 악화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다. 양국은 국경지역을 평화로운 상태로 유지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러시아가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였지만, 중·러간에는 이념대립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중·러는 각종 채널을 통하여 상대방이 선택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방식을 존중함으로써 양국관계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다는 데 합의하였기 때문이다.⁷¹⁾

둘째로는 중·러간 전략적 제휴가 강화되어 양국관계가 동맹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21세기 세계 신질서 구축문제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정책을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고, 양국간에는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군사무기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군사분야에서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중·러는 대만문제와 체첸 문제에 있어 상호 협력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국경지역을 영

70)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세력은 지리노프스키 등과 같은 극단적 민족주의자들과 외무장관을 역임한 코지레프를 주축으로 하는 친서방주의자들이다. 이들은 러시아가 중국과 협력하기 보다는 미, 일 등과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한다. Alexander Lukin, "Russia's Image of China and Russian-Chinese Relations," www.brook.edu/fp/cnaps/papers/lukinwp-01.htm.

71)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 제3조 참조.

구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중·러관계가 동맹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의해서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을 무시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유럽 확대정책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ABM조약을 파기하고 미사일방어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려 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자연적으로 반미 성향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중·러는 정례적으로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등을 개최하여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며,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아시아지역 안보협력기구인 상하이 협력기구를 활성화하여 미국의 대중·러 견제정책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활용하려 할 수 있다.

셋째로는 중·러가 다극화 질서 구축문제 등으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양국관계가 동맹관계로까지는 발전되지 않고 양국의 실리에 기초한 전략적 협력관계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 중·러간 안보협력의 범위와 깊이는 현재처럼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중·러 양국의 이익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즉, 중·러간에는 현재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는 공히 국가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대내 발전과 안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에 직접 대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2001년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 테러사건 발생 이후 중·러가 미국의 대아프가니스탄 보복공격을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들 양국의 발전을 위해 미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러는 정상회담 이후 발표하고 있는 공동성명문과 선린우호협력조약에서 양국간의 군사안보 영역에서의 협력이 제3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독립자주외교정책 노선을 표방하면서 어떤 강대국과도

동맹관계를 결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해 왔다. 중국은 동맹외교를 냉전시기의 안보개념이라고 비난하고 협력안보를 21세기의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게 되었고 러시아도 이 기구에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질서에서의 편입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가. 정치외교관계

21세기초 중국과 러시아간 정치외교관계는 상하이 협력기구와 선린 우호협력조약에 기초하여 계속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1996년 중·러와 카자흐스탄, 타지크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간에 창설된 상하이 5개국회의를 모체로 하여 발전된 다자 안보협의기구이다. 변경지역에서 군사적 신뢰와 군축문제를 논의하는 다자 협의체에서 정치·외교·안보·군사·경제 등 다방면에서 전면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다자 협력기구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대내 경제건설을 위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주변환경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다자 협력기구 창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상하이 협력기구는 미국이 배제된 안보협력기구로 중·러가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항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⁷²⁾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신장과 시장 등 서북부지역의 안정유지를 위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 협력이

72) 상하이 5개국회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蔭光, “上海五國的發展前景與合作機制,” 『中國評論』, 2001年 6月號(2001. 6), pp. 44~48; 夏義善, “發展中的上海五國機制,” 『國際問題研究』, 2001年 第3期(2001. 5), pp. 34~38 참조.

필요하다. 그리고 러시아는 상하이 협력기구를 주도함으로써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중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침투’를 저지하려 한다. 따라서 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해 중·러간 정치외교적 협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상하이 협력기구는 몇 가지 제약요인을 가지고 있다. 중·러는 이 기구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는 중·러간의 정치·외교적 협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중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보다 많은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이 기구를 주도해 나가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 것도 이 기구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아울러 2001년 새로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4개국도 이 기구에 대해 이해관계가 다르다.⁷³⁾ 따라서 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한 중·러간의 협력은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1세기 양국관계 발전방향을 규정한 선린우호협력조약에서도 중·러는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이 제3국을 겨냥하려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을 자극하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았다. 중·러간의 협력관계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러정책과 양국의 국익에 기초하여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정치외교분야에서 중·러간의 협력은 특히 세계 신질서 구축문제와 국가통합문제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이 세계질서를 독단적으로 유지해 나가려고 할 때 중·러는 쌍무 및 다자적 차원에서 정치외교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중·러는 세계질서의 다극화, 유엔 등 국제기구의 역할강화 그리고 내정불간섭 원칙을 주창할 것이다. 그리고

73) “上海五國機制的發展和前景,” www.cnradio.com/fivecountry/critique/index3-0612.htm.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공존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민족분리주의 운동과 테러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나. 군사안보관계

중국과 러시아간의 협력은 군사안보 분야에서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부시 미국 행정부는 반테러 전쟁으로 인하여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일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불량배 국가와 테러리스트가 발사하는 장거리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위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 따라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반대해 온 중국과 러시아간의 안보협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집권 초기와는 달리 부시 미국 행정부가 반테러 전쟁 수행과 미사일방어체제 구축과정 등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유연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은 중·러의 대외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⁷⁴⁾ 미국이 반테러 전쟁을 수행한 후 중·미, 미·러관계가 급격하게 개선됨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다소 감소하였다. 미국의 반테러 전쟁이 단기간 내에 종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 유연한 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고, 중·러는 무리하게 반미 안보협력을 추구하지는

74) 럽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2001년 10월 24일과 11월 14일 실시할 예정이었던 미사일요격 실험을 취소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9월 11일 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중국의 시각에 대해서는 英杰, “9.11事件後美國對外政策的微妙變化,” 『人民日報』(海外版), 2001. 11. 3 참조.

않을 전망이다.

중·러간에는 군사 교류·협력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중국은 대만 문제 해결과 해·공군력 증강을 위해 첨단 군사무기장비가 필요한데, 비교적 낮은 가격과 좋은 조건으로 군사무기장비를 수입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계속해서 러시아의 최대 무기수출 대상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중·러간에는 정례적으로 국방장관회담이 진행될 것이며, 군사지도자 교환방문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접촉은 중·러간 군사적 신뢰구축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중·러간 군사협력에도 제약이 있게 될 것이다. 러시아 내에서는 중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면 결국 러시아 자신에게도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잠재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공격무기를 제공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자금 제공에 미온적이고 러시아가 군사기술 공유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러간 군사기술 협력도 큰 진전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⁷⁵⁾

다. 경제무역관계

중국은 동북부지역과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러시아를 필요로 하고 러시아는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특히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시험하면서 석유, 가스, 전력 등 에너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은 러시아 내의 자원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중·러는 경제무역관계를 정치안보협력관계 수준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75) Alexander Larin, "Russia's Chinese Policy under President Vladimir Putin," p. 17.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와 선린우호협력조약에서도 경제협력 확대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고, 1998년부터 총리간 정례회담을 통해서도 경제교류 확대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로써 최근 5억 달러에서 6억 달러 수준에 머무르던 양국간 교역규모가 2000년에는 7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양국간 경제교류·협력에는 한계가 있다. 러시아의 수출상품 구조가 취약하고, 러시아 극동지역의 시장구매력이 극도로 낮다. 러시아의 질 낮은 상품으로 중국시장에서 일본과 한국의 상품과 경쟁하기 어렵다. 그리고 러시아의 기후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국인이 러시아에 투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러시아인이 중국 내에 합작기업을 세울만한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⁷⁶⁾ 따라서 가까운 시일내에 중·러가 목표로 하는 연간 200억 달러 수준으로 교역관계를 발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러는 양국간 경제협력 여지가 많다고 강조하지만, 양국관계에서 경제협력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중·러간에 연간 10억 달러 정도의 무기거래가 이루어지고 러시아의 자원이 중국에 수출되고 있지만, 러시아는 중국에게 있어 미국이나 서방국가에 비해 경제적으로 덜 중요한 교역국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다만,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서부 대개발로 중국이 경제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은 에너지 자원 확보를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가스과 석유 등 에너지 자원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러시아와의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76) Alexander Larin, "Russia's Chinese Policy under President Vladimir Putin," pp. 11~12.

V. 중·러관계 변화와 동북아 및 한반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일본과 더불어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두 축을 구성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2008년 올림픽 개최권 확보 등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고,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의 지도하에 대내 안정을 되찾고 아·태지역에 대한 영향력 회복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북아 안보 및 한반도 통일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1996년 4월 이래 미국과 일본이 안보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라는 이름 아래 군사안보 및 외교영역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2001년에는 중앙아시아국가들과 함께 「상하이 협력기구」를 창설하였고, 1950년의 동맹조약과는 다르지만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한 「선린우호 협력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중·러간에 안보협력 강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동북아 안보질서와 한반도 안보 및 통일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망하기로 한다.

1. 중·러관계 강화와 동북아 안보질서

가. 미·일 대 중·러간 경쟁구도 유지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미·일간 공조체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러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구축을 모색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 대처하려는 데 있기 때문에, 중·러관계 발전은 미국의 동북아정책에 직접적

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여전히 중국을 경쟁상대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대처하기 위한 중국의 러시아와의 안보협력 강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일본과의 군사안보적 유대관계를 계속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9.11 테러사건 이후 일본 의회는 미국의 반테러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테러대처 특별조치법안」, 「자위대법 수정안」, 「해상보안청법 수정안」 등을 통과시켜 자위대 병력의 해외파병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11월 3대의 함정이 인도양에 파병되었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일본 전투병력의 해외파병이다.⁷⁷⁾ 미국과 일본간의 군사협력이 동북아지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 범위에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간의 안보협력 강화는 일본내 보수우익 세력에게 군사력 증강의 빌미를 제공하고 미국과 안보협력 확대의 명분을 주게 될 것이다.

결국 동북아에서는 미·일동맹에 대처하기 위한 중·러 안보협력 구축과 중·러 안보협력 강화에 따른 미·일동맹 심화가 반복되는 형태로 안보질서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러간 안보협력 강화에 제약요인이 존재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중·러와의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 많기 때문에 향후 전개될 미·일 대 중·러간의 경쟁구도는 냉전시기와 같은 진영론적 대결구도가 아니라 각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느슨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구도는 미국의 대중·러 정책에 의해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중·러에 대해 유연한 정책을 전개하게 되면 중·러간의 안보협력의 강도가 느슨해질 것이나, 미국의 대중·러 정책이 강경한 방향으로 전개되면 중·러간 전략적 제휴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77) www.cnn.com/2001/world/asiapcf/east/11/08/ret.japan.warships/index.html.

나. 미·중간 갈등 지속

21세기 초에도 미·중관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은 미국의 패권 정책과 대만문제가 될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정책 지속, 일본과의 동맹관계 강화 및 대만 방위지원 등이 미·중관계를 경색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⁷⁸⁾ 반면, 중·러관계가 미·중관계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보다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⁷⁹⁾

그러나 중·러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미국에 의한 세계패권질서 형성을 견제하려는 데 있기 때문에 중·러관계 강화는 미·중관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⁸⁰⁾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러시아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대만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할 경우,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압력을 무력화

78) 신상진, 『중·미관계와 한반도: 외교안보 및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47~55; 楊潔勉, “跨世紀世界格局中的美國全球戰略,” 『國際問題研究』, 2000年 第6期 (2000. 11), pp. 27~28; Evan A. Feigenbaum, “China’s Challenge to Pax American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4, No. 3 (Summer 2001), pp. 31~43.

79) 경제건설을 최우선적인 국가정책 목표로 설정한 후 중국은 “칼날을 숨기고 힘을 기른다”는 ‘韜光養晦’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경제현대화를 실현할 때까지 미국과의 마찰을 피한다는 것이다. 亓成章, 王堅紅, 『當前國際環境與中國對外戰略,方針,政策』 (北京: 黨建讀物出版社, 2000), pp. 233~236.

80) 중·러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하이 협력기구’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Bates Gill, “Shanghai Five: An Attempt to Counter US Influence in Asia?”

시키려 할 것이다.⁸¹⁾

미국이 중·러관계 강화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하게 되면, 미국은 중국의 잠재적 경쟁국인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와 베트남과도 안보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⁸²⁾ 따라서 향후 중·러관계 강화와 이에 따른 미국의 대중정책 변화는 미·중관계에 또 다른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 미·러간 협력과 불신 양립

중·러관계 발전추세가 지속된다면 미·러관계에는 이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세계 패권정책을 공동으로 견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나, 미국은 중·러간 안보결속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러시아에 대해 유연한 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도 중국과의 관계를 적절히 활용하여 미국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러간에는 아직도 전략적 불신이 존재하고 있고, 인도·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과의 관계에서 이해가 상이하기 때문에 중·러관계가 미국을 공동의 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⁸³⁾ 따라서 중·러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미·러관계는 사안에 따라 불신과 협력이 동시에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전개될 것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

81) 미국은 1990년 이래 제네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중국 인권비난 결의안」 상정을 시도해 왔으나, 러시아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 왔다.

82) 현재 미 백악관 외교안보보좌관인 라이스는 2000년 미 대통령 경선과정중 발표한 기고문에서 일본과 인도와의 안보협력 강화를 적극 주장한 바 있다. Condoleezza Rice,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9, No. 1 (January/February 2000), pp. 45~62.

83) Bates Gill, "Shanghai Five: An Attempt to Counter US Influence in Asia?"

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도, 중·러관계 발전이 미·러관계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2001년 11월 푸틴 대통령의 방미시, 러시아는 미국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전략 핵탄두 감축과 반테러 전쟁 등 민감한 국제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⁸⁴⁾ 그리고 푸틴은 미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해 나가면서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유럽 확대정책에 대한 기존의 강경한 반대입장을 전환할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푸틴 대통령은 방미 직후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통전화를 걸어 부시 대통령과의 논의된 내용을 통보하였다. 러시아의 이러한 태도는 중국과 전략적 협력 강화가 러시아의 대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라. 중·일간 불신 증대

일본은 많은 분야에서 중·러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러간 안보협력 강화를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중·러관계가 강화되면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고, 러시아와의 북방 4개도서 반환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은 안보상으로도 보다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과 군사안보관계를 심화시키는 한편 자위대 병력을 증강시키려 할 것이다. 최근 일본이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도 중·러

84) David E. Sanger, "Bush and Putin Agree to Reduce Stockpile of Nuclear Warheads,"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4, 2001.

관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러 관계 강화는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 등을 주장하는 일본내 보수우익 세력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은 일본의 이러한 군사안보적 동향을 ‘군국주의 부활’을 기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일 비난을 강화할 것이다.⁸⁵⁾ 결국 중·일간 안보적 불신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2. 중·러관계 강화와 한반도 통일환경

가. 중·러의 한반도정책

중·러관계가 발전되면 한반도 안보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이 경쟁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중·러 양국은 상호간 안보협력관계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중·러관계의 변화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중·러는 중요한 국제문제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데에도 합의 하였던 바,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중·러의 공감대가 확대될 전망이다.⁸⁶⁾ 다만, 한반도에서 보다 많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중·러간의 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특히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러의 대남북한 외교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 향후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중·러의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이다.

85) “綜述: 日本,果眞重溫軍國舊夢?” www.people.com.cn/GB/junshi/62/20011115/606190.html.

86) Vsevolod Ovchinnikov, “Russian Paper Views ‘Far Eastern Stage’ of Putin Diplomacy,” FBIS-SOV-2000-0628, Daily Report, wnc.fedworld.gov.

중국은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데 최우선 정책 목표를 둘 것이다. 중국이 러시아 등과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대내 경제발전에 유리한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가 발전된 이후에도 중국은 한반도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가 다른 강대국의 세력범위에 편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두 개의 한국정책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한반도 정책기조에 입각해서 볼 때,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을 계속 지지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간 긴장이 심화되면 중국의 대·미·일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국 내부 안정과 발전에도 결코 이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악화될수록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 참여를 주저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북한의 대외고립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이 북한의 대외정책을 유연하게 전환시키고 남북관계를 호전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북한체제의 안정과 동북아지역의 평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물론 2001년 9월 장쩌민 주석이 방북 시에도 밝힌 바와 같이, 중국은 북한과 중국이 각자의 현실에 맞는 발전방식을 탐색해 나가야 한다는데 합의하는 등 북한에게 중국식 개혁·개방노선을 강요하려 하지 않고 있다.⁸⁷⁾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계속 폐쇄적인 정책을 지속할 경우 북한의 경제난이 완화되기 어렵고 중국 자신에게도 큰 부담이

87) “爲了友誼，爲了和平，”『人民日報』(海外版)，2001. 9. 6.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2001년 1월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인 상하이 푸둥지역을 방문하고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옳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사실은 중국이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설득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⁸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문제도 향후 한반도의 주요한 안보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한·미관계가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문제는 한국과 미국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반도 통일 이후 등 중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미동맹이 해체되어야 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이 강화될수록 중국은 한·미동맹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⁸⁹⁾

러시아 역시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복원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⁹⁰⁾ 러시아는 현 상황에서 남북한관계를 급진전시킬 만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발언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처지에 있는 자신에

88) “參觀浦東開發區，面對變化發感慨：金正日密訪上海，”『環球時報』，2001. 1. 23.

89) 이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Fei-Ling Wang, “Joining the Major Powers for the Status Quo: China’s Views and Policy on Korean Reunification,” *Pacific Affairs*, Vol. 72, No. 2 (Summer 1999), pp. 170, 182~185; 于美華, “駐韓美軍爲何賴着不走,” 『瞭望』, 2000年 第39期 (2000. 9), p. 62 참조.

90) 러시아는 2000년 6월 승인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개념’에서 한반도를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관심대상으로 지목하고, 한반도문제 해결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남북한과 균형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였다.

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안정과 발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2001년 7월 김정일 위원장 방러 시 발표된 「모스크바선언」에서 남북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지지하며 한반도문제에 대해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러시아는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에 대해 영향력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나, 북·미, 북·일관계 개선이 한반도와 연계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⁹¹⁾

한·미동맹과 주한미군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도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이후에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지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데 중국과 공감하고 있다. 러시아도 한·미동맹이 지속될 경우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심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1년 7월 북·러간에 합의된 모스크바선언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이해를 표명한 것은 북한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였다.⁹²⁾ 당분간 러시아 역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할 정도로 한·미동맹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전망이다.

91) 2001년 7월 김정일 위원장 방러시에도 러시아는 북·미, 북·일대화 지지 입장을 밝혔다.

92) 『동아일보』, 2001. 8. 7.

나. 중·러·북 3각관계 전망

21세기에 들어 중국·러시아·북한 3국은 활발한 접촉과 교류를 통해 안보협력관계를 복원하고 있다. 중·러는 상호간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과거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던 북한과도 우호협력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대북 접근정책을 적극화하고 있다. 북한 역시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과 관계개선을 모색하면서 서방국과의 대화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중·러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중·러와도 관계복원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단절되어 온 최고 지도자 교환방문을 2000년부터 복원함으로써 전통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000년 5월 남북 정상회담을 불과 보름 앞두고 김정일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하여 남북대화 등 한반도 안보문제를 사전 협의하고 경제협력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국가 발전노선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였다. 2001년 1월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직전에도 김정일 위원장은 상하이와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으로부터 개혁·개방정책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경제지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에게 개혁·개방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하고자 하였다.⁹³⁾

2001년 9월에는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1990년 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식량 20만톤과 디젤유 3만톤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안보문제를 협의하였다. 장 주석 방북시에도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3개 대표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념과 노선 대립 발생 여지를 차단하였

93) 신상진, “김정일 방중 배경과 영향,” www.yonhapnews.co.kr/ne.../217010000200101161709490.htm.

으며, 중·북은 “전통을 계승하여 미래를 지향하며, 선린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데 합의하였다.⁹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 하고 있고, 북한도 체제유지의 안전판으로서 중국의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북간 우호협력관계 강화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러·북관계도 2000년 이래 급속하게 진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2월 냉전시기 동맹조약을 대체한 「친선선린 협조조약」을 체결하였고, 7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시 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러·북관계가 재정립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러·북은 2001년 4월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 방러를 계기로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하여 러시아제 군사무기의 북한 제공문제를 논의하였다.

러·북관계는 2001년 7월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완전히 정상화되었다. 러·북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과 북한의 전략난 해소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한반도 안보문제를 협의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를 반대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러시아가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복원하려 하고 있고 북한도 외교 및 군사적으로 러시아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러·북간 관계복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처럼 중·러, 중·북, 러·북간 양자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바, 이는 이들 3국간 관계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중·러·북한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문제와 미국에 의한 세계질서 지배를 일치하여 반대하고 있다. 반테러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중·러·북한 3국간 안보 공조체제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3국간 군사교류와 접촉이 증대될 것이며, 3국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패권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화

94) 『人民日報』(海外版), 2001. 9. 6.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러·북한관계가 냉전시기와 같은 북방 3각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중·러간에는 전략적 불신이 상존하고 있고, 중·북관계와 러·북관계도 상호 전략적 이해에 따라 좌우되는 형태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와는 달리 중·러·북한 지도부 사이에 인적 유대관계가 희박하며, 이념의 상이성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국가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이들 3국관계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도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키고 있는 북한과 무리하게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보다는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세계 어떤 강대국과도 동맹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외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공동의 적을 상정하지 않는 협력안보 개념을 21세기 새로운 안보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러·북한 3국관계가 미국이나 한국을 겨냥한 군사적 동맹 성격을 갖는 긴밀한 안보협력관계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중·러·북한간 안보협력관계가 확대되면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중·러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관계가 복원되면 북한에 대한 이들의 발언권이 증대될 것이다. 중·북, 러·북 지도부간 교류가 확대되고 북한에 대한 중·러의 정치·경제·군사적 지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한국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에 대한 중·러의 영향력이 확대되게 되면 미국과 일본

도 한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접근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북한과 중·러관계가 복원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을 때에도,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여 국무장관을 북한에 파견하고 중단되었던 수교 교섭을 진행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성을 보인 바 있다. 요컨대, 중·러관계가 강화되고 중·러·북한간 안보적 연대가 증대되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주변 4국간 영향력 강화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 주도로 한반도문제를 논의하여 통일시기를 앞당기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러간 안보협력 심화는 한반도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우선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중·러 양국간 공감대가 확대될 것이다. 중·러 모두 한반도의 안정유지를 바라고 때문에 북한에 대해 대규모 군사지원을 제공하기보다는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계속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중·러 안보협력 강화는 한반도 안정유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중·러가 남북대화 진전 등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북한의 변화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러관계 발전과 이들의 대북 영향력 복원은 남북관계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중·러의 지도자들은 북한 지도자들과 접촉시 남북관계 개선을 설득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VI. 한국의 정책 고려사항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향후 중·러간 안보협력 강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러는 세계질서의 다원화를 주창하면서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며, 특히 미국의 MD체제 구축을 저지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대만문제와 체첸문제로 인하여 민족분리주의와 종교극단주의 그리고 테러대처문제에 있어서도 중·러간에 안보적 공감대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중·러 모두가 경제발전을 우선시 할 것이므로 중·러간 안보협력은 양국의 국익에 기초하여 제한적인 형태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간 역사적 불신감과 제한적인 경제교류·협력도 중·러간 안보협력을 한단계 더 심화시키는 데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중·러간 안보협력 강화는 미·일간 안보동맹관계 강화를 촉진시키고 동북아에서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을 증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전개는 동북아 안보질서를 미·일 대 중·러간 경쟁구도로 발전시킬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간의 각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과거사문제와 상대방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의혹으로 정치·군사적 불신이 지속될 것이다.

중·러가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대국이라는 점에서만 보더라도, 중·러관계의 심화는 한반도 안보 및 통일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러 모두가 대내문제 해결을 위해 안정적인 주변환경을 바라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할 것이므로, 중·러간 안보협력 강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러간 안보협력 강화와 북한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 복원은 미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한반도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채택하도록 할 것이다. 결국 한반도문제를 둘러싸고 미, 중, 일, 러 4대 강국간 영향력 확대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러간 안보협력 강화가 동북아 안보질서 및 한반도 통일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 한국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중·러 정책 및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미국과의 동맹관계 유지를 핵심 외교정책 기조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21세기 초까지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지속될 것이며, 중·러간 안보협력도 일정 정도 제약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기존의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한 안보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외교안보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굳건한 안보협력관계를 유지할 때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한국이 가지는 안보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당분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전개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고 중·러와의 관계에도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앞으로도 중·러가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주장하면서 미국에 의한 세계질서 지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미·중, 미·러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중·러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문제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한국은 사전에 미국과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지위변경 문제 등을 신중하게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도 안보교류·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중·러·북한간 관계복원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북한에 대한 중·러의 영향력도 다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에 유지되고 있는 중·러와의 군사교류·협력 채널을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군사안보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방안까지도 적극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러 군사 실무자와 한국군 실무자간 정기 교류·접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러와 군사안보 교류·협력 추진시 미국과 사전 협의하고 협의내용을 사후에 통보함으로써 한·미동맹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러관계 강화가 남북관계 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중·러에 대해 외교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중·러관계 강화가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중·러간 안보협력 강화가 중·러·북한간 북방 3각관계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단정짓고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중·러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러에 대해 외교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중·러에게 남북관계 개선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중·러도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러한 요청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넷째, 중·러관계 개선을 남북한간 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북한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천연가스와 석유 등 중국과 러시아의 자원을 북한을 통하여 육로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공급선을 다원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중·러간 안보협력관계 강화 결과 미·중, 중·일관계가 경색되면 한반도문제를 둘러싸고 4대국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바, 한국은 미·중, 중·일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중재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

다. 한국은 미·중·일·러간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을 만큼 강대국이 아니지만, 지역 다자안보대화 개최 등을 통해 강대국간 관계악화 가능성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안보대화는 중·러가 추구하는 21세기 안보외교 방침과도 부합된 안보개념이다.

여섯째, 미국의 MD정책과 ABM조약 개정문제와 관련하여 정책적 모호성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러간에 안보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들이 미국의 MD체제 구축 정책을 반대하기 때문인 바, 향후에도 MD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러 사이에 갈등이 지속될 것이다. 2001년 11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미시에도 미·러는 전략 핵무기 탄두 감축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하였지만 미국의 MD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2001년 2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시 한국이 ABM조약 개정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한·미관계를 난처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한국은 MD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선부르게 한국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보다는 가능한 입장표명을 유보하면서 미국과 제한적으로 미사일 관련 기술·정보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신상진. 「중·미관계와 한반도: 외교안보 및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辭海」, 縮印版.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89.
- 亓成章, 王堅紅. 「當前國際環境與中國對外戰略,方針,政策」. 北京: 黨建讀物出版社, 2000.
- 李而炳 主編. 「世紀之交的中國與世界」. 北京: 解放軍出版社, 1997.
- 閻學通 等. 「中國崛起—國際環境評估」.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97.
- 劉山, 薛君度 主編. 「中國外交新論」.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7.
- Lu, Ning. *The Dynamics of Foreign-Policy Decisionmaking in China*. Boulder, Colorado: Westview, 2000.
-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1995*.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6.

2. 논문

- 강원식. “러시아·중국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 12).
- 신상진. “김정일 방중 배경과 영향.” www.yonhapnews.co.kr/ne.../217010000200101161709490.htm.
- 夏義善. “중·러 석유·천연가스 협력의 현황과 전망.” 「극동문제」. 2001

년 6월호 (2001. 6).

- 于美華, “駐韓美軍爲何賴着不走.” 『瞭望』, 2000年 第39期 (2000. 9).
- 石澤, “論新時期的中俄關係.” 『國際問題研究』, 1996年 第2期 (1996. 4).
- 張雅君, “當前中共與俄羅斯的關係.” 『中國大陸研究』, 第36卷 第12期 (1993. 12).
- 朱聽昌, “論中國睦隣政策的理論與實踐.” 『中國外交』, 2001年 第8期 (2001. 8).
- 沈傳烈, 程輝, “蘇聯解體與中國國家利益.” 『世界知識』, 1992年 第8期 (1992. 8).
- 孫國祥, “北京與莫斯科戰略協作伙伴關係之形成與探析.” 『中國大陸研究』, 第40卷 第8期 (1997. 8).
- 孫其明, “國家利益衝突與中蘇關係的破裂.” 『中國外交』, 2001年 第8期 (2001. 8).
- 劉華秋, “指導新時期對外工作的強大思想武器—學習鄧小平外交思想的體會.” 『人民日報』, 2000. 7. 13.
- 蘇浩, “中國外交的伙伴關係框架.” 『世界知識』, 2000年 第5期 (2000. 2).
- 顧德偉, “美國反華議案屢遭失敗的紀錄.” 『人民日報』, 2000. 4. 19.
- 翁明, “上海五國:新的安全模式.” 『人民日報』, 2001. 5. 11
- 王桂芳, “上海五國機制:中國國際地位提高的見證.” 『人民日報』, 2001. 6. 15.
- 夏義善, “發展中的上海五國機制.” 『國際問題研究』, 2001年 第3期 (2001. 5).
- 夏義善, “充滿生機的上海五國.” 『中國外交』, 2001年 第8期 (2001. 8).
- 趙龍庚, “試析中俄安全利益中的伊斯蘭主義.” 『現代國際關係』, 1998年 第10期 (1998. 10).
- 黃慧珠, “綜述: 普京爲什麼支持布什打擊恐怖主義.” 『人民日報』, 2001.

10. 4.

馮玉軍. “對中俄戰略協作關係的再思考.” 『現代國際關係』. 1998年 第8期 (1998. 8).

張大林. “評日美安全保障聯合宣言.” 『國際問題研究』. 1996年 第4期 (1996. 10).

藩光. “上海五國的發展前景與合作機制.” 『中國評論』. 2001年 6月號 (2001. 6).

英杰. “9.11事件後美國對外政策的微妙變化.” 『人民日報』(海外版). 2001. 11. 3.

楊潔勉. “跨世紀世界格局中的美國全球戰略.” 『國際問題研究』. 2000年 第6期 (2000. 11).

鄭羽. “中俄戰略協作伙伴關係的由來.” 『文匯報』. 1997. 11. 7. www.fmprc.gov.cn/chn/15155.html

“新世紀初國際形勢的幾個特點.” news.xinhuanet.com/world/20010514/560154.htm.

“五國今簽邊境裁軍協定.” 『文匯報』. 1997. 4. 24.

“中俄聯合公報.” 文匯報. 1998. 12. 19.

“世紀之交的中俄關係.” 『人民日報』(海外版). 1998. 11. 24.

“中俄經貿合作宜迅速拓展.” 『文匯報』. 1999. 2. 27.

“錢其琛在烏舉行中外記者招待會.” 『人民日報』. 1999. 6. 13.

“中國倡建五國合作機制.” 『文匯報』. 2000. 7. 6.

“中俄聯合聲明促棄冷戰思惟.” 『文匯報』. 1997. 4. 24.

“綜述: 日本, 果真重溫軍國舊夢?” www.people.com.cn/GB/junshi/62/20011115/606190.html.

“爲了友誼, 爲了和平.” 『人民日報』(海外版). 2001. 9. 6.

“參觀浦東開發區, 面對變化發感慨: 金正日密訪上海.” 『環球時報』. 2001.

1. 23.

- 茅原郁生. “緊密化中俄關係の表と裏.” 『世界週報』. 1996. 12. 31.
- Black, Stephen J. “Russo-Chinese Military Relations and Asian Security.” *Issues and Studies*. Vol. 33, No. 11 (November 1997).
- “China links Islamic separatists to terrorism.” asia.cnn.com/2001/WORLD/asiapcf/east/11/15/china.uyghurs/index.html.
- Feigenbaum, Evan A. “China’s Challenge to Pax American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4, No. 3 (Summer 2001).
- Gill, Bates. “Contrasting Visions: United States, China And World Order.” Remarks presented before the U.S.-China Security Review Commission Session on U.S.-China Relationship and Strategic Perceptions. August 3, 2001.
- Gill, Bates. “Shanghai Five: An Attempt to Counter US Influence in Asia?” www.brook.edu/views/op-ed/gill/20010504.htm.
- Hockstader, Lee. “Russia and China Agree: Washington is too Boss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4, 1997.
- Huan, Guocang. “The New Relationship with the Former Soviet Union.” *Current History*. Vol. 91, No. 566 (September 1992).
- “In Sign of Amity, Russia and China to Limit Border Troop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5, 1997.
- Larin, Alexander. “Russia’s Chinese Policy under President Vladimir Putin.” *Far Eastern Affairs*. No. 3, 2001 (May-June 2001).
- Legvold, Robert. “Russia’s Unformed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Vol. 80, No. 5 (September/October 2001).
- Li, Jingjie. “Pillars of the Sino-Russian Partnership.” *Orbis*. Vol. 44,

- No. 3 (Fall 2000).
- Lukin, Alexander. "Russia's Image of China and Russian-Chinese Relations." www.brook.edu/fp/cnaps/papers/lukinwp-01.htm.
- Lukin, Alexander. "The Image of China in Russian Border Regions." *Asian Survey*. Vol. 38, No. 9 (September 1998).
- McFaul, Michael. "Realistic Engagement: A New Approach to American-Russian Relations." *Current History*. Vol. 100, No. 648 (October 2001).
- Menon, Rajan. "The Strategic Convergence between Russia and China." *Survival*. Vol. 39, No. 2 (Summer 1997).
- "Moscow Looks East to Counter NATO."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3, 1997.
- Mufson, Steven. "U.S.-Japan Accord Fans China's Fears." *Washington Post*. April 19, 1996.
- Ovchinnikov, Vsevolod. "Russian Paper Views 'Far Eastern Stage' of Putin Diplomacy." FBIS-SOV-2000-0628, Daily Report. wnc.fedworld.gov.
- Portyakov, V. "Are the Chinese Coming? Migration Processes in Russia's Far East." *International Affairs*. Vol. 42, No. 1 (January-February 1996).
- Rice, Condoleezza.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9, No. 1 (January/February 2000).
- Sanger, David E. "Bush and Putin Agree to Reduce Stockpile of Nuclear Warheads."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4, 2001.
- Sergounin, Alexander A. and Sergey V. Subbotin. "Sino-Russian

Military Cooperation: Russian Perspective.” *Regional Studies*. Vol. 15, No. 4 (December 1997).

Sun, Dingli. “Implications of the New U.S. Administration For East Asia: A Chinese View.” www.nautilus.org/nukepolicy/workshops/shanghai-01/shenpaper.html.

Volkhonskiy, Boris and Andrei Ivanov. “Beijing has let Primakov down.” *Kommersant-Daily*. December 24, 1998.

Wang, Fei-Ling. “Joining the Major Powers for the Status Quo: China’s Views and Policy on Korean Reunification.” *Pacific Affairs*. Vol. 72, No. 2 (Summer 1999).

Yu, Bin. “Sino-Russian Military Relations: Implications for Asian-Pacific Security.” *Asian Survey*. Vol. XXXIII, No. 3 (March 1993).

3. 기타

「동아일보」.

「人民日報」(海外版).

「人民日報」.

「文匯報」.

「明報」.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ane’s Defence Weekly.

People’s Daily.

www.joins.com.

www.cnradio.com.

www.cnn.com.

www.insidechina.com.

www.people.com.cn.

www.xinhua.org.